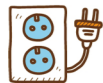
여름철 전기절약 행동요령

우리집 전기절약 체크리스트

평상시 필수사항

- 에어컨 등 전기냉방기기의 사용은 자제합니다. ✓ 체크

- 사용시간 외 TV, 컴퓨터, 충전기 등의 플러그는 뽑습니다. ✓ 체크

- 실내온도는 26℃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 체크

- 사용하지 않는 곳의 조명은 완전 소등합니다. ✓ 체크

- 여름철 전력피크시간대 (오후 2 ~ 5시)에는 전기사용을 최대한 자제합니다. ✓ 체크

비상시 대응요령

- 전기냉방기기의 사용을 중지합니다.
- 다리미, 청소기, 세탁기, 전자렌지, 식기세척기, 헤어드라이기의 사용을 중지합니다.
- 재난상황파악을 위한 TV, 라디오를 제외한 가전기기의 사용을 중지합니다.
-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방의 조명등을 모두 끕니다.

평상시 권장사항

- 실내냉방기기 온도는 한 단계 낮게 (강▶약) 설정합니다. ✓ 체크

- 세탁기는 한 번에 모아서 사용합니다. ✓ 체크

- 식기세척기는 가득 찰 때만 사용합니다. ✓ 체크

- 전기밥솥 대신 압력솥을 이용합니다. (전력사용▶가스사용) ✓ 체크

- 전기밥솥은 장시간 보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체크

- TV · 컴퓨터 사용시간을 줄이고, 반드시 셋톱박스의 전원을 끕니다. ✓ 체크

- 컴퓨터는 절전모드를 설정하여 사용합니다. ✓ 체크

- 청소기는 한 단계 낮게 (강▶중) 조절하여 사용합니다. ✓ 체크

- 냉장고의 음식물은 60%만 넣어 냉기순환이 잘되게 합니다. ✓ 체크

- 냉장고는 벽과 거리를 두고, 뒷면 방열판을 주기적으로 청소합니다. ✓ 체크

- 인원수에 적합한 용량 및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합니다. ✓ 체크
- 백열등은 형광등, LED조명 등 고효율조명으로 교체합니다. ✓ 체크

Weekly 공감

2012.07.18 NO.168
korea.kr/gonggam

대한민국 구석구석 夏夏好好! 여행을 떠나요

이 땅의 명소를 둘러보자

유연태
여행작가 ·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최근 전남 곡성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다. 섬진강 기차마을의 장미공원에 들러 예쁜 향기를 맡아보고, 추억의 증기 기관차를 타보고 늦은 점심으로는 압록유원지 부근에서 참게탕을 맛보았다. 오후 일정은 태안사 답사, 섬진강문화학교 독도 사진 감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석곡의 돼지숯불구이로 저녁 만찬을 즐겼다. 얼마 전 아들을 군에 보내고 다소 우울해하던 아내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곡성 방문이 우리 가족에겐 이번 여름 여행의 제1탄인 셈이다. 새벽 일찍 출발하면 교통체증에 시달리지 않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땅임을 새삼 깨닫는다.

여름휴가가 다가오자 지인들로부터 가끔 여행지 추천 의뢰를 받는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누구와 어디를 가고 싶다'고 밝히면 답하기 편할 텐데 거두절미하고 '어디로 휴가를 떠나면 좋겠는가?'라고만 물어본다. 그런 질문들에 답해줄 때마다 "저마다 신년 초에 '나만의 여행지 톱 10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긴다. 먼저 원하는 주제를 정한다. 가족건강을 위해 걷기 좋은 길, 조용한 캠핑장, 트레킹 가능한 섬, 기차 타고 맛집 찾아가기, 차향 그윽한 산사, 하루에 끝내는 시티투어 등. 그리고 주제에 맞춰 여행지 10군데만 선정한다.

1년 52주라지만 웬만한 직장인들로서는 매주 여행 떠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10군데만 모두 다녀와도 1년 여행은 성공한 셈이다. 한 발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우리 땅 여행 다녀온 소회를 기록으로 남기고 부지런히 온라인상에서 이웃들과 공유한다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나만의 여행지 톱 10 리스트'를 만들어두면 여름휴가철이 다가와도 어디로 떠나야 할지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

올해의 경우 경기가 좋지 않아 해외 대신 국내에서 여름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국내로 떠나면 억지쇼핑이나 팁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무리한 옵션관광을 할 필요가 없으니 좋다. 일정이나 여행지, 숙박시설, 음식메뉴 선정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해외여행 때보다 훨씬 수월하다. 가족들과 어울려 떠난 여행길에서 맛보는 제주 자리물회, 여수 하모, 섬진강 은어, 평창 올챙이국수, 안동 찜닭, 금산 삼계탕, 파주 초계탕 등의 맛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다. 요즘에는 피서지마다 레포츠 시설도 늘었다. 거제도나 강릉해변의 짚라인, 제천의 산악체험장, 통영의 요트학교, 서울의 실내인공빙벽 등에서는 레포츠를 즐기며 무더위를 식힐 수 있다.

연초에 '나만의 여행지 톱 10 리스트'를 만들어두자. 원하는 주제와 그에 맞는 여행지 10곳을 선정하는 것이다. 1년 52주라지만 매주 여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10곳만 모두 다녀와도 1년 여행은 성공한 셈이고 여름휴가철을 맞아 어디로 갈지 우왕좌왕할 필요도 없다.

여름휴가는 평소 시간을 내기 어려워 가보고 싶어도 찾지 못했던 이 땅의 명소들을 만나보기에 좋은 기회이다. 구르는 돌, 풀 한 포기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이번 여름에는 '나만의 여행지 톱 10' 중 적어도 한 곳에는 다녀오되 발자국은 남기지 말고 추억만 가져오시길. G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Contents

168호
2012.07.18 통권 269호

표지 이야기 | 진흙 좀 묻어도 괜찮아요! 맨발로 신나게 인천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갯벌을 달리는 아이들 표정이 보는 이마저도 미소 짓게 만든다.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올 여름 휴가에는 전국 방방곡곡 어디로든 나들이 한 번 떠나보면 어떨까. 사진·조선DB

기획특집

농·어촌으로 휴가 지역경제 살린다

직장과 가정, 학교에서 참으로 바쁘게 살아온 당신, 잠시 삶에 쉼표가 되어줄 여행의 즐거움을 누려보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볼 것도, 갈 곳도 많습니다. 벌레 소리와 별빛 감상을 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여행, 하룻밤 유목민의 꿈을 꾸어보는 산촌·강촌의 캠핑장들,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산림욕과 숲길 걷기…. 4대 강변을 따라 달리는 자전거여행, 정겨운 지역축제들은 어떨고요.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바다의 축제 여수엑스포도 한창입니다.

25

12

42

54

위클리 공감 korea.kr/gonggam
발행일 2012.07.18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887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7월 26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 드리는 〈Weekly 공감〉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성명과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호를 읽고

미리 준비하는 귀농·귀촌 프로그램 반가워

삶의 여유를 찾고 싶다는 귀농인구가 최근 5년새 6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막연한 기대로 시작한 귀농·귀촌은 실패하기도 쉬운 법이다. '귀농·귀촌 특집' 완주군과 홍성군의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과 지원 프로그램 소개를 보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훨씬 성공적인 귀농·귀촌이 될 것 같다. 정부 차원에서도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귀농·귀촌을 체계적으로 돕는다고 하니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무척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다.

홍대욱(42·회사원·경남 양산시 소주동)

작은 것부터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져

167호에 실린 이영수 명장의 기사를 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보일러 기술로 재능 나눔을 실천하고 사재를 털어 실직인들을 교육시켰다는 것이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이영수 명장 같은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우리 사회가 따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넉넉한 사람들만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니 제가 작은 부분이라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연승(25·회사원·서울 양천구 목동)

시골 체험은 아이들이 농촌을 이해하는 계기

167호 '시골마을 하룻밤 체험 못 잊을 거예요'를 읽고 우리나라의 도시인들이 농촌의 실상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방학이나 휴가 때 자녀들을 데리고 농촌 체험을 가는 것이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 아이들이 농어촌 실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들으며 농어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또한 논밭에서 농사일도 돕고 전통 한지도 만들어보며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게 한다면 도농 간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지(30·회사원·대구 달서구 죽전동)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로 국민 편익 높아질 듯

아파도 밤이 늦어 약을 사지 못하고 고생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3종의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일반약과 전문약을 분류하는 데 사회적으로 논쟁이 뜨거워 시일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제도가 시행돼 감기약, 소화제, 두통약 등을 언제든 살 수 있으니 이제는 밤늦게 끙끙 앓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김준희(37·주부·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독자 인터뷰

"귀농·귀촌 기사 재미있게 읽어… 필수 정보 더 실어주길"

하유정(28·충남 아산시)

하유정씨는 두 아이의 엄마다. 시민단체에서 일하다 결혼한 후 출산과 육아를 위해 지금은 휴직한 상태다. 바쁜 일상에서 육아 지원제도나 각종 제도 변화 등을 꼼꼼히 살피지 못하는데 〈위클리 공감〉으로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어 꼭 챙겨본다고 한다. 또 주부이다 보니 장바구니 물가 변화나 경제 전망 등 가계 경제와 관련한 기사도 열심히 읽는다고 한다.

167호에서 재미있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귀농·귀촌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어요. 전북 완주에 그런 로컬푸드 매장이 있다니 감탄했어요. 저도 시댁이 나주인데 시부모님이 계신 마을도 근처 도시 마을과 협정을 맺는 방식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눔을 실천해 국민포장을 받은 분들 기사도 인상깊게 읽었어요. 마음이 참 따뜻해지더라고요."

앞으로 〈위클리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기사가 있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어떨지 걱정이 되곤 해요. 역경을 딛고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읽고 싶어요. 이름이 많이 알려진 분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이면 더 좋겠어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힘이 나더라구요. 또 이번처럼 농·어촌 지역이 활기를 찾게 원예 등을 자주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어촌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균형 발전으로 가는 지름길이잖아요. 앞으로도 〈위클리 공감〉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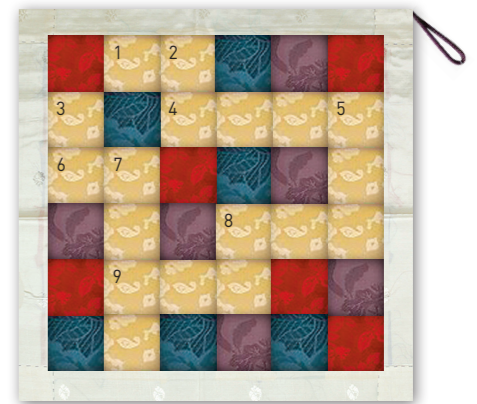
강변 가족사진 콘테스트

한국수자원공사가 강을 배경으로 한 행복한 가족 사진을 공모한다. 강과 가족이라는 주제와 관련성이 있으면서도 꿈, 사랑 등의 키워드가 잘 표현된 작품이 좋다. 심사는 참신성, 예술성 등을 고려해 이루어진다. 수상작은 9월 중 4대강 문화관에 순회 전시될 예정이며 입상 후 저작권은 한국수자원공사에 귀속된다. 자세한 사항은 4대강 이용도우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응모대상 | 강을 사랑하는 모든 분
응모주제 | 강을 배경으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담은 사진
제출건수 | 1인당 3장 이내
시상내역 | 대상 1명 1백만원 등 총 1백9명에게 시상
응모일정 | 8월 20일 6시까지
제출방법 | 4대강 이용도우미 홈페이지(www.riverguide.go.kr)를 통해 응모 10MB 이내의 JPEG 또는 GIF파일을 사연과 함께 등록
문　　의 | 운영사무국 ☎02-6911-6570

제4회 독립기념관 UCC 공모전

독립기념관이 새롭게 바뀐 전시관과 시설,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즐거움이 넘쳐나는 독립기념관의 이미지를 알리고자 UCC를 공모한다. 독립기념관 입체영상관 상영작의 주제곡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여 독립기념관의 아름다운 전경과 전시관, 시설 등을 소재로 독립기념관을 가고 싶은 명소로 참신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면 된다. 단체 참여 및 다작 응모가 가능하며 단체 참여의 경우 팀원은 10명으로 제한한다. 자세한 사항은 독립기념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응모대상 | 누구나(제한없음)
음　　원 | 독립기념관 저작권 보유 음원인 '우리가 만드는 세상', 'I can fly' 중 선택/창작곡 및 저작권 저촉이 되지 않는 무료 음원
시상내역 | 대상 2백만원 등 총 15명 시상
응모일정 | 2012년 7월 16일 ~ 9월 10일
제출규격 | 2~3분 이내
제출방법 | 독립기념관 홈페이지(www.i815.or.kr)에서 동영상 파일을 등록
문　　의 | 독립기념관 사이버전략팀(webmaster@i815.or.kr ☎041-560-0344)

공감퍼즐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7월 26일 오전까지 ji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불볕더위. 여름철 이것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죠.
4. 주말을 이용해 도시 주변 작은 농장에 채소 등을 가꾸는 재미가 쏠쏠하죠.
6. 야외 활동이나 벌초 등을 할 때 이것을 건드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세요.
8. 숲에서 편안히 쉬면서 몸과 마음을 보양할 수 있는 곳.
9. 호수의 언저리. 호반.

세 로

2. 염불할 때에 손으로 돌려 개수를 세거나 목에 거는 법구(法具).
3. 바닷물이 드나드는 모래톱. 강화, 시화호, 보령, 서천, 순천….
5. 간장에 쇠고기를 넣고 조린 반찬.
7.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 장대비. "OOOO가 예상되는 장마철에는 산사태나 감전·침수 등의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8. 쉬는 일. 그렇다고 '일'은 아니죠.

〈Weekly 공감〉 166호(7월 4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콜롬비아 3 보라 4 세전 6 보금자리 8 공정
세로 1 콜라 2 비과세 4 보증금 5 전자정부 7 자활

〈Weekly 공감〉 166호 '공감 퍼즐' 당첨자
온새미로·전남 화순군 화순읍
김경훈·부천시 원미구 상2동
노상우·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심재호·울산시 북구 호계동
김인순·경북 김천시 신음동

지난 7월 11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 런던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이 열렸다. 선수단은 2백45명의 선수와 1백29명의 임원진으로 이뤄져 있다. 대회 개막식 기수는 남자 핸드볼 대표팀의 윤경신이 맡는다.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의 힘을 믿는다"

총 3백74명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금 10개 종합순위 10위' 목표 다짐

런던올림픽 개막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10개 이상 획득과 종합순위 10위권 수성을 노린다. 선수단은 총 3백74명이다. 개막식 기수로는 남자 핸드볼 대표팀의 윤경신이 선정됐다. 지난 7월 11일 열린 결단식에는 1948년 런던올림픽에 출전했던 최윤칠·함기용 선생이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기도 했다.

2012 런던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결단식이 지난 7월 11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렸다. 런던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은 이날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단식을 열고 필승을 다짐했다. 런던올림픽은 한국시각으로 7월 28일 새벽 5시에 개막한다.

10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내 국가별 종합순위 10위권 수성을 노리는 우리 선수단은 총 22개 종목에 출전한다. 선수단은 총 3백74명이 파견된다. 임원 1백29명에 선수 2백45명이다. 총 26개 종목 가운데 농구·테니스·승마·카누는 출전권을 못 땄다. 2백10명의 선수가 출전했던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 이후 가장 적은 선수가 출전한다. 야구가 정식 종목에서 빠진 데다 남녀농구, 남자배구, 여자축구가 탈락했기 때문이다.

1948년 런던올림픽 출전한 최윤칠·함기용 선생 참석

종목별로 보면 남녀 하키 32명, 사격 13명, 탁구 6명, 태권도 4명, 양궁 6명, 체조 7명, 남녀 핸드볼 28명, 역도 10명, 펜싱 14명, 조정 4명, 근대5종 3명, 배드민턴 12명, 레슬링 9명, 유도 14명, 축구 18명, 복싱 2명, 요트 4명, 트라이애슬론 1명, 사이클 10명, 여자배구 12명, 육상 17명, 수영 19명이 출전한다.

이번 대회 개막식에서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는 기수는 남자 핸드볼 대표팀의 윤경신이 맡는다. 남자선수단 주장으로는 하키의 여운곤이, 여자선수단 주장에는 탁구의 김경아가 뽑혔다.

박용성 회장은 결단식에서 "올림픽은 국민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5천만 국민이 하나로 뭉치는 무대"라며 "1948년 런던올림픽에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전하고 64년 만에 나서는 대회인 만큼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최광식 장관은 "그동안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의 힘을 믿는다"며 "선수들 모두 자신감을 앞세워 전진해달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선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위대한 승리자"라며 "최고의 꿈을 안고 투지를 불태울 선수들을 응원한다"고 했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도전과 성취의 무대다.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힘을 줄 것"이라고도 했다.

결단식에는 1948년 런던올림픽에 출전했던 마라톤의 최윤칠(84)·함기용(82) 선생이 특별 손님으로 참석해 후배들을 격려했다.

대한체육회는 런던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과 포상을 제공한다. 런던의 브루넬대학과 협약을 맺고 브루넬대학의 기숙사와 의료 시설을 이용해 '현지 캠프'를 차렸다. '훈련 파트너'도 런던 현지로 데려간다.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훈련파트너를 데려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권도, 레슬링, 복싱 등의 종목은 익숙한 훈련 파트너와 경기 직전까지 훈련을 계속 하는 것이 경기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훈련 파트너들은 브루넬대학에 머물며 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돕는다.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포상

메달 포상금도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6천만원을 받는다. 4년 전 베이징올림픽 때보다 1천만원이 올랐다. 은메달 포상금은 5백만원이 오른 3천만원이다. 동메달은 3백만원이 오른 1천8백만원.

선수단 사기 진작을 위해 지도자·선수 수당 및 급식비도 현실화했다. 지도자 수당은 월 3백80만원에서 4백30만원으로 50만원 올랐다. 출전선수 수당은 하루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고, 급식비는 하루 2만6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상됐다.

이제 한국 선수들이 런던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는 것만 남았다. 올림픽은 이미 시작됐다. 선수단 본진은 20일 런던으로 출발한다.

글·하주희 기자

크라우드 펀딩 '오성과 한음' 프로젝트

국악 응원가 런던 하늘에 울린다

런던올림픽 선수단을 위한 국악 응원가가 만들어졌다. 제목은 '코리아'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진행 중인 국악 응원 프로젝트 '오성과 한음'의 일환으로 작곡됐다.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마련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프로젝트의 소요 비용을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후원받는 새로운 후원방식이다. '오성과 한음' 측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천8백여만원을 모금했다.

'오성과 한음'은 '오천만 국민의 성원을 한국의 음악으로'라는 뜻이다. 응원가 작곡과 뮤직비디오 촬영은 가수 '싸이'가 맡았다. 지난 3일 국악계와 체육계 유명인, 일반인을 포함해 1천명이 참여해 국악 응원 뮤직비디오를 찍었고 현재 작업 중이다. 응원가와 뮤직비디오는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런던올림픽 현지 홍보부스에서도 상영할 예정이다.

2012 런던올림픽 대한민국 국악응원 프로젝트 www.ohgugak.kr

런던올림픽 기간 전후로 열리는 문화축제 오색찬란은 음악, 미술,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를 소개한다. 왼쪽부터 국악그룹 '공명', 가면극을 재해석해 선보이는 한국음악 프로젝트 그룹 '비빙'.

작가 김범의 설치 작품.

런던은 지금… '오색찬란' 한국 문화 올림픽

사우스뱅크센터와 협력 100일 동안 다양한 문화행사 진행

런던에서 '대한민국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바로 '오색찬란' 행사다. 영국 현지의 예술기관과 함께 미술, 음악, 패션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한 한국 문화를 세계인에게 선보인다. 1백일 동안 진행되는 문화축제는 스포츠 강국뿐 아니라 '문화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면모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런던올림픽 기간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런던 시내 곳곳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문화축제 '오색찬란(五色燦爛)'을 연다. 오색찬란은 여러 빛깔이 한데 어울려 아름답게 빛난다는 뜻이다. 전통과 현대가 한데 어울려 법고창신의 정신을 보여주는 문화 축제를 여는 것이 목표다. 영화와 한식뿐 아니라 미술과 문학, 국악 등 한국에 K팝이나 드라마 외에도 세계인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과거에는 단순히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의 건물을 빌리는 식으로 진행해 정작 현지인과는 유리된 단발적인 행사가 될 소지가 있었다. 이번에는 올림픽을 전후한 1백일 동안 현지의 예술 센터와 함께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복합적으로 진행한다.

오색찬란 축제는 런던의 사우스뱅크센터(South Bank Centre)와 협력하며 진행된다. 사우스뱅크센터는 1951년에 설립된 음악, 무용, 시각예술, 공연 등의 예술 장르를 포괄해 다루는 유럽 최대의 예술 복합기관이다. 음악 공연이 이뤄지는 로열페스티벌홀·퀸엘리자베스홀과 헤이워드갤러리 등 여러 부대시설로 이뤄져 있다.

미술·전시

최정화·이불 등 한국 작가 작품 선보여

축제 기간에 여러 한국 작가가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 중 최정화, 김범, 이불 작가는 사우스뱅크센터가 초청했다. 최정화 작가는 팝아트 작품을 헤이워드갤러리 야외 외벽에 설치했다. 한국적인 소재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9월 9일까지 전시된다.

김범 작가는 회화, 드로잉, 오브제 등 폭넓은 매체를 이용한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치미술가 이불 작가의 작품은 이미 전시를 마쳤다.

한국과 영국에서 활동하는 신미경 작가는 런던 시내 번화가에 기마상을 세운다. 〈Written in Soap〉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19세기 중반까지 카벤디쉬 광장에 세워져 있었지만, 지금은 좌대만 남은 컴버랜드 공작의 기마상을 비누로 재현했다. 약 2년 동안 자연 풍화될 비누 조각상을 통해 '시간'과 '역사'의 개념을 표현했다. 이번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주영 한국문화원 내 전시실에서는 '꼭두, 또 다른 길의 동반자'라는 제목의 색다른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상여, 꼭두 인물상, 봉황, 식물문양판 등의 작품이 1백여 점이 모였다.

공연

가면극·판소리와 클래식 무대 연이어

국악과 클래식 등의 공연도 예정돼 있다. 사우스뱅크센터 내의 공연 시설에서 열린다. 7월 23일에는 '비빙'의 공연이 열린다. 비빙은 한국 전통 음악에 무용, 영상 등을 접합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해 온 한국음악 프로젝트 그룹이다. 이번에는 〈이면공작〉이라는 제목 아래 한국 가면극을 재해석한 공연을 선보인다.

7월 28일에는 타악기와 관악기로 구성된 국악그룹인 '공명'이 공연한다. 7월 29일에는 '바람곶' 공연이 열린다. '바람곶'은 작곡가 원일이 이끄는 음악 단체다. 〈한국음악앙상블〉이라는 제목으로 산조, 시나위, 굿 등 국악 및 전통문화 공연을 창조적으로 해석해 공연한다.

7월 30일에는 이자람이 판소리를 공연한다. 창작 판소리극 〈사천가〉를 공연한다. 〈사천가〉는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서사극 '사천의 선인'을 21세기 한국적 상황에 맞춰 판소리와 뮤지컬 형식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창작극이다.

오색찬란 세부 프로그램 및 일정

콘텐츠	프로그램	일정	장소
K-미술	• 문화원 기획전시	7월 11일~9월 8일	주영 한국문화원
	• 최정화 작가 야외조형물 Time After Time • 김범 작가 개인전	5월 31일~9월 9일 7월 17일~9월 2일	사우스뱅크 (헤이워드 갤러리)
	• 신미경 공공미술 프로젝트	7월~2013년 6월	카벤디쉬 광장
	• 디지털 병풍 전시	7월 29일~8월 25일	해롯 백화점
K-공연	• 전통 한류 〈비빙〉 〈공명〉 〈바람곶〉 〈이자람 판소리〉	7월 23일(19:30) 7월 28일(19:45) 7월 29일(19:45) 7월 30일(19:30)	사우스뱅크 (퀸엘리자베스홀) (퍼셀 룸) (퍼셀 룸) (퀸엘리자베스홀)
	• K-클래식 콘서트	7월 31일(19:30)	(로열 페스티벌 홀)
K-영화	• 무성영화 〈청춘의 십자로〉	8월 2일	영국영화협회
K-패션 & K-푸드	• 패션쇼 이상봉 '단청' 컬렉션 • 한식 리셉션 셰프 '레오 강' 한식 만찬	7월 30일(20:00)	빅토리아& 알버트박물관(V&A)
K-복합 문화 콘텐츠	• 2012 Thames Festival 참가	9월 8일~9월 9일	테이트모던 뱅크사이드
K-강연	• 오색찬란 한국 문화 열린 강연회	6~9월	주영 한국문화원

7월 31일에는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와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 런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지휘자 라이프 세겔스탐이 협연을 펼친다. 런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는 영국의 3대 교향악단 중 하나다. 공연이 열릴 로열페스티벌홀은 사우스뱅크 내에 있는 2천9백석 규모의 공연장이다.

패션·한식

이상봉 패션쇼와 한식만찬 함께 어울려

패션쇼와 한식을 함께 선보이는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 〈오색찬란, 한국의 색을 입히다〉라는 주제로 7월 30일에 열리는 행사에서는 이상봉 디자이너가 패션쇼를 열고 요리사 레오 강과 김소희가 한식 만찬을 선보인다. 이상봉 디자이너는 단청과 전통 조각보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옷으로 패션쇼를 연다.

한국 문화에 대한 열린 강연회도 진행 중이다.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라는 이름으로 한국미술, 공연, 음식,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현지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다. G 글·하주희 기자

7월 11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2012 서울진로직업 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진학, 진로상담과 대학생 멘토 상담을 하고 있다.

고졸시대 앞당기는 정책 쏟아진다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기업엔 인센티브 줘 열린고용 실현

대통령 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고졸시대 정착을 위한 선취업-후진학 및 열린고용 강화 방안'을 중점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위풍당당 고졸시장 정책'이란 정책을 통해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을 2011년 10월 63.6퍼센트에서 2012년 4월 89.7퍼센트로 끌어올렸다.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해 미래의 기술 명장을 기르는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졸업생 취업률 1백퍼센트'라는 경이적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13년 2월 졸업예정인 전국 35개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의 84.8퍼센트가 취업이 확정된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7월 13일 '고졸시대 정착을 위한 선취업-후진학 및 열린고용 강화 방안'을 중점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 6월 14일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는 '취업약정 1백퍼센트 달성 및 가족회사 지정식'을 열고 "졸업생 1백42명 전원에 대한 취업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평택기계공업고는 마이스터고 중 최초로 '취업률 1백퍼센트'를 기록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애니메이션, 마케팅 등 특정 분야의 인재 및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은 2011년 10월 63.6퍼센트에서, 2012년 4월 89.7퍼센트로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특성화고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2009년 73.5퍼센트에서 2012년 50.2퍼센트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013년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1백퍼센트 취업에 성공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의 60퍼센트가 직장을 잡을 경우, 이로 인한 취업 효과는 약 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5월 23일자 사설에서 "고졸 인재에 눈뜬 것은 이명박정부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같은 취업률 변화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고졸취업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구조를 활성화하고 ▲인사관리를 좀더 개방적으로 유도해 '열린 고용'을 향한 사회적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마이스터고 졸업자 1백퍼센트 취업 눈앞에

정부는 고학력화로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높아져 생산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불균형을 우려해 2008년부터 ▲고용 시장에서의 학력 차별 ▲과도한 학력 추구로 인한 사회적 낭비 ▲현장 산업인력의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을 모색해 왔다. 이른바 '위풍당당 고졸시장 정책'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학교, 기업, 사회가 다 함께 성장하는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취업 명품'을 강조하는 마이스터고 35개교를 지정, 운영해온 것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마이스터고는 전문성이 강조된다.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하이닉스반', 전자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삼성LED반' 등 교육과정을 산업수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또 학생 1명당 평균 1백20만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원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 3천명을 배치해 학생들의 목표 설정을 돕고 졸업 후 진로를 개발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고졸 공무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인재 9급 추천 채용제'를 신설해 취업의 문을 넓혔으며, 고졸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9급공채 시험과목에 고교과목을 추가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는 고졸자 채용 상황을 반영했다.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새로 채용한 기업에는, 채용자 1명당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해주는 등 세제 우대 정책도 곁들였다.

정부는 고졸자가 입사 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에까지 신경을 썼다. 공공기관 입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졸자가 대졸자와 동등한 직위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규정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월 5일 충북 진천읍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합동 개교식에 참석한 뒤, 온실에서 학생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이번 조사 보고는 그동안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정부는 이같은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013년까지 전국 4천6백90개 중·고등학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하고 ▲2011년 2백37만건이었던 진로검사를 2012년 4백92만건으로 확대하며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중학교 재학 중 1회 이상 직업체험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군필자 복직 땐 기업에 세제 등 인센티브

지난해 9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선정한 정부는 FTA 등 전문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 마이스터'를 별도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초 2만2천명이던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 규모는 2012년 올해 하반기 2만5천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는 군복무 문제다.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것이 대부분이며, 대기업의 경우엔 군미필자 채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같은 현실을 고려,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이 군복무를 마친 뒤 그 회사로 복직할 경우엔 해당 기업에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기술습득~군복무~취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군 특성화고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기능요원이나 기술병을 선발할 경우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생을 우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G

글·이범진 기자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로 이루어진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6월 30일 영국 와딩턴 국제에어쇼에서 환상적인 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떴다! 블랙이글스… 월드베스트 '인증'

영국 와딩턴 에어쇼에 이어 RIAT에서 최우수 에어쇼상 수상 쾌거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처음 참가한 해외 국제에어쇼에서 잇따른 수상 소식을 전했다.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 8대가 동시에 푸른 하늘을 날며 다채로운 곡예비행을 펼친 블랙이글스는 국산 항공기와 한국 공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해외에서 열린 국제에어쇼에 처음 참가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잇따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비상하고 있다.

블랙이글스는 지난 6월 30일(이하 현지시간)부터 7월 1일까지 영국 와딩턴 공군기지에서 열린 '세계 에어쇼팀의 올림픽' 와딩턴국제에어쇼에서 '최우수 에어쇼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와딩턴 국제에어쇼는 세계 18개국 92대의 항공기가 참가해 14만여 명이 관람한 영국공군 최대의 에어쇼이다.

블랙이글스는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동일한 성능의 T-50B 8대로 구성된 특수비행팀으로, 외국에서 열린 에어쇼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블랙이글스는 검은색, 흰색, 노란색을 조합해 날카롭고 역동적인 검은 독수리를 형상화한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 8대를 동시에 기동하며 와딩턴 국제에어쇼에 참가한 초음속 항공기로는 유일하게 다채로운 곡예비행을 펼쳤다.

이번 에어쇼의 경연은 세계 각국의 베테랑 조종사로 구성된 10여 명의 심사위원들이 쇼 구성, 규정 준수여부, 관람객의 호응도, 팀워크 등 세부 심사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평가했으며, 블랙이글스는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블랙이글스의 최우수상 수상은 첫 출전인 만큼 낯선 환경, 시차, 원활하지 않은 군수지원 등의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면서 영국의 '레드 애로즈(Red Arrows)', 이탈리아의 '프레체 트리콜로리(Frecce Tricolori)', 사우디아라비아의 '호크스(Hawks)' 등 자국 공군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 14개 팀과 당당히 경쟁해 나온 결과여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블랙이글스는 이어 7월 7일부터 8일까지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에서 열린 RIAT 에어쇼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팀에게 주어지는 시범비행 최우수상과 RIAT 특별회원들이 선정한 인기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국산항공기 T-50 · 한국 공군 우수성 확인

블랙이글스는 RIAT 에어쇼에서 약 25분간 환상적인 특수비행을 선보였으며, 한몸을 이룬 듯한 대형을 갖추고 박진감 넘치는 기동을 관람한 관중들은 '최고의 비행술'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시범비행 최우수상은 1983년부터 1989년까지 RIAT(Royal International Air Tatto)의 후견인이었던 요르단의 고(故) 후세인 국왕을 기념하는 상으로, 7명으로 구성된 비행운영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블랙이글스를 선정했다.

인기상은 RIAT를 후원하는 1천3백97명의 항공군사 마니아 회원들이 에어쇼 기간 중 최고의 공중기동을 선보인 팀에게 투표해 선정하는 상이다.

이 두 상을 모두 수상함으로써 블랙이글스는 RIAT 에어쇼에서 전문가와 아마추어가 선정한 최고의 팀이 됐다.

블랙이글스 비행대대장 김영화 중령(43·공사 41기)은 "국제무대에서 세 번이나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항상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해주는 블랙이글스의 모든 팀원들, 그리고 모든 국민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영국 왕실이 주관하는 RIAT 에어쇼는 1971년부터 개최되어 매년 20여 개국, 20만명의 관람객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의 군수 에어쇼다. 올해에는 앞서 함께 경기를 벌인 영국의 레드 애로즈를 비롯해 스위스, 요르단 등 11개국 총 40개 팀, 1백12대의 항공기가 참가했다.

또 블랙이글스는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영국 판버러 국제에어쇼에도 참가했다. 판버러 에어쇼는 파리 에어쇼, 싱가포르 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꼽힌다.

블랙이글스는 이번에 영국에서 열린 3개의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T50B 8대와 예비기 1대 등 모두 9대를 분해해 수송기로 싣어 나른 현지에서 재조립해 곡예비행을 선보였다. 에어쇼를 마친 뒤에는 다시 비행기 분해작업을 거쳐 7월 17일 귀국한다.

한편 이번 블랙이글스의 국제에어쇼 참가기간 동안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T-50 항공기 수출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쳐졌다.

블랙이글스 팀원들이 검은 독수리를 형상화한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위사진). 와딩턴 국제에어쇼에서 환상적인 비행을 선보이고 있는 블랙이글스. 조종석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T-50 유럽수출 위한 홍보활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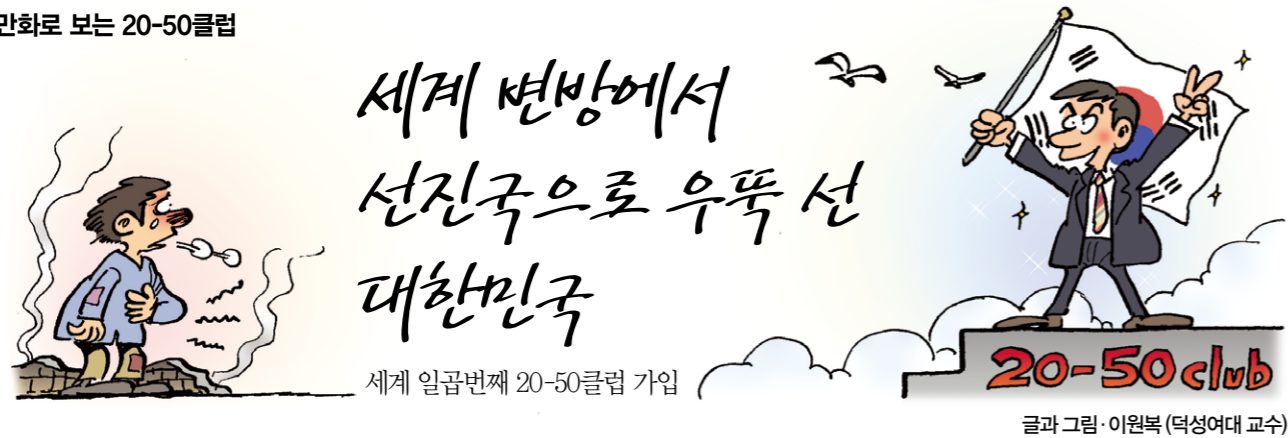
7월 5일에는 주영 한국대사관 주관으로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사보이호텔에서 T-50 유럽수출 지원을 위한 홍보 리셉션이 개최되어 각국 국방획득관계자와 방산업체, 언론사 등의 관심을 받았다.

또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은 RIAT와 판버러 에어쇼 기간 동안 폴란드 공군사령관과 미국 공군총장을 차례로 만나 현재 수출이 논의 중인 T-50 항공기의 우수성을 적극 알렸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판버러 에어쇼 기간 중 T-50 수출 실적이 있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영국, 인도, 필리핀 등 수출 잠재국을 대상으로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G

글·박경아 기자

세계 변방에서 선진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세계 일곱번째 20-50클럽 가입

글과 그림·이원복 (덕성여대 교수)

2012년 6월 23일 오후 6시36분경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명을 넘었다고 통계청이 밝혔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1인당 연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명을 갖춘 20-50클럽에 가입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20-50클럽 가입국가

연도	국가
1987	일본
1988	미국
1990	프랑스
1990	이탈리아
1991	독일
1996	영국

6개 선진국에 이어 16년 만에 대한민국이 일곱번째로 진입한 것이다.

진입 못한 캐나다만 빼고 모두 G7(Group of 7) 국가라는 점에서

20-50클럽 가입은 우리나라가 확실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신호이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나라 가운데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로버트 루카스 교수: 시카고대, 노벨경제학상 수상

앞으로 당분간 새로운 회원국이 나오기 어려운 전망이고 보니

대한민국은 세계 변방에서 모두가 주목하는 신데렐라로 떠오른 셈이다.

이는 또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약소국가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쾌거는 위기에 굴하지 않는 국민의 도전정신과 근면성, 기업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한국은 이미 지난해 말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고 수출은 세계 7위 규모다.

20-50클럽은 선진국 모임의 대표격인 G7과 거의 겹치는 것으로

한국이 캐나다 대신 들어가면 G7과 20-50클럽의 명단이 똑같아지는 셈이다.

그러나 한국이 G7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무리라는 의견이 많다.

*WEF **삼성경제연구소, OECD

몸집이 커진다고 체력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듯이 20-50클럽 가입 후 그에 맞는 위상을 지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더 늘려야 한다.

한국은 경제, 스포츠, 문화 등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힘을 합쳐 사회통합을 이루고 국격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30-50클럽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낮시간 외출 시 현기증, 두통 등을 느끼면 일단 그늘 같은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며 시원한 음료를 섭취해야 한다.

무더위 쉼터 전국 3만7천여 곳 점검

재난도우미도 6만9천여 명 확보… 방문·전화로 건강관리

지난 6월 25일 기상청은 올 여름 첫 폭염특보를 발표했다. 이날 경기 북부와 인천광역시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섭씨 33도 이상으로 올라갔다. 폭염특보에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있다. 기상청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내리고, 폭염경보는 최고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측될 때 내린다.

기상청은 올 7월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무더울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의 기후변화 때문에 여름철 폭염 일수와 폭염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6월부터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정부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내놨다.

폭염을 대비해 전국 곳곳의 '무더위 쉼터'를 점검한다. 무더위 쉼터는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가서 쉴 수 있는 장소로 각 지자체가 지정한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주로 노인들이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는 장소다. 전국에 3만7천2백18곳이 있다. 무더위 쉼터는 2012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가까운 무더위 쉼터가 어딨는지 알기 위해서는 시청이나 구청 등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일러스트 · 신동호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을 돕는 재난도우미도 추가확보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6천5백36명이 증가한 6만9천2백47명이다. 이들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노인돌보미,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이뤄져 있다. 재난도우미는 폭염이 예상될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과 동행해 폭염 취약계층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건강을 관리한다.

이외에도 폭염으로 인한 환자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병원 간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 폭염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내역이 보고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과 같은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했다. G

글 · 하주희 기자

가정·학교에서

-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 부득이 외출할 경우 창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꼭 물병 휴대하세요.
-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마시지 마세요.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고 선풍기를 켜세요.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마세요.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장시간 외출할 때는 친인척·이웃 등에 보호를 의뢰하세요.
- 탈수 등의 이유로 소금 등을 섭취할 때에는 의사의 조언을 들으세요.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를 보일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몇 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세요.
-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하지 마세요(심장마비 위험).
-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단축을 검토하세요. 폭염경보 발령 시 휴교조치를 검토하세요.
- 운동장에서의 체육 활동,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
- 학교 급식 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농어촌에서

- 정전을 대비해 양식장 발전기계를 사전에 점검하세요.
- 습기 또는 직사광선에 의한 양식장 사료의 부패에 주의하고 생사료는 산화가 빠르므로 각별히 신경 쓰세요.
- 양식어류를 꾸준히 관찰하고 질병발생 징후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질병발생 여부 확인 및 치료 등 조처를 하세요.
- 육상 양식시설에 차광막을 설치하고 저층수와 상층수를 뒤섞으세요.
- 환수량을 최대한 늘리고 수조 내 얼음을 넣거나 수온이 낮은 지하해수를 공급해 수온 상승을 억제하세요.
- 양식시설의 창문을 열고 닫아 통풍이 잘되게 하세요.
- 수온상승에 따른 산소결핍을 예방하기 위하여 액화 산소를 공급하세요.
- 하우스 내 피해예방을 위해 차광시설, 물방울 관수시설, 수막시설 등을 설치하세요.
- 병충해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방제를 강화하세요.
- 노지 재배채소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물을 주세요.
- 누전, 합선, 과열 등으로 인한 축사 화재 발생이 우려되므로 냉방과 환기를 할 때는 전기 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 축사 천장에는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부착하세요.
- 축사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해 지속적인 환기를 하며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세요.
- 돈사, 계사 천장에 물 분무장치를 설치해 복사열을 방지하세요.
- 모기 퇴치기구를 설치하고 축사를 소독하세요.
- 사육하는 동물에 비타민, 미네랄을 섞은 사료를 먹이세요.

산업·건설 현장에서

- 휴식시간은 장시간 갖기보다 짧게 자주 가지세요.
-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 시는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세요.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 공간은 피하세요.
-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하세요.
- 식중독,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을 청결히 관리하세요.
-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하세요(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과 같은 열 발생원인을 피하고 방열막을 설치하세요.
- 발한작용을 저해하는 소재나 형태로 된 의복 착용을 피하세요.
-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해 야간 근무를 하세요.
-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 2~5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 특히 야외에서 작업할 경우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삼가세요.
- 안전모와 안전띠 등의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작업 시에는 각별히 신경 쓰세요.

응급환자 신고상담 전화 '119'로 단일화

소방방재청 '119구조구급국' 신설… 재난에 효율적 대처

서울 남산에 위치한 서울종합방재센터 119 종합상황실. 장마로 인한 재난과 물놀이 사고가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에 접어든 7월 12일 방문한 이곳은 새 식구들의 적응이 한창이었다. 지난 6월 22일 맞이한 보건복지부 1339 응급의료센터의 상담원들이다.

종합상황실의 김용준 상황총괄팀장은 "1339 쪽에서 넘어온 의료상담원들이 달라진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곳에는 서울지역 1339 응급의료센터에서 공중보건의 2명을 포함해 16명의 의료상담원들이 자리를 옮겨왔다. 서울종합방재센터의 기존인력 중 의료상담이 가능한 12명까지 모두 28명의 의료상담 인력이 2교대로 긴급의료 상황에 대한 상담을 맡고 있다.

의료상담 인력은 사건·사고가 적은 평일에는 8명씩,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13~14명씩 배치된다. 이곳 종합상황실에는 평일 하루 약 1천건, 주말에는 하루 1천5백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전체 상담인력은 모두 1백38명, 3개조로 나눠 24시간 신고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 남산 서울종합방재센터 119 종합상황실. 지난달 보건복지부 1339 응급의료센터의 상담원들이 합류해 장마로 인한 재난과 물놀이 사고가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1339도 내년 6월까지 한시 운영

사실 '119' 하면 화재신고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119 신고전화 접수 내용을 들여다보면 화재보다는 재난구조나 응급상황구조가 압도적으로 많다.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접수한 119 신고전화 3천25만건을 분석한 결과 화재신고는 35만8천건으로 1.18퍼센트에 그친 반면 ▲구급신고는 4백13만건 ▲구조신고는 39만3천건이었다. 이 둘을 합치면 15퍼센트에 달한다.

이에 지난 6월 22일부터 서울, 부산, 울산, 제주 지역 1339 응급의료센터의 상담업무 일부를 해당 지역 119 종합상황실로 이전받고 6월 26일부터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1339 응급의료센터의 상담업무 일부를 이전받아 통합 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휴일, 야간 등 의료취약 시간대뿐만 아니라 일년 365일 24시간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출동, 안내와 상담,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등 응급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도착과 정까지 모든 서비스가 119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또 의료상담 전문인력이 119에 더해지면서 119의 중증환자에 대한 대처도 향상돼 구급서비스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됐다.

올해로 15년째 운영되어온 보건복지부 관할인 1339 응급의료센터는 대중적 인지도가 119보다 낮은 데다 국민 대다수가 위급 시 119를 선호해 1339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다만 1339 폐지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339는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기획조정관, 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등 1관 3국이던 소방방재청의 직제가 7월 중 1관 4국으로 확대·개편되고, 기능도 새롭게 조정된다.

소방방재청은 정체된 직제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119구조구급국을 신설했다.

119구조구급국은 기존의 구조구급과 업무를 일괄 이관받는 것과 더불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으로 인한 신규 사무도 맡게 된다. 각 시도 119소방상황실과 구급상황 관리센터를 관리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업무 등이 그것이다.

이번 조직 개편의 특징은 신설된 119구조구급국에 30명의 인원이 근무할 예정이지만, 인원 증설 없이 자체 인력 재조정을 통해 새로운 국(局)을 출범시킨 것이다. G

글·남창희 객원기자

심폐소생술 실시 방법

자료 소방방재청

준비운동 꼭!… 다리부터 천천히 물속으로

경련이 올 땐 몸의 힘을 빼고 신속히 구조를 요청하세요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계곡, 강, 바다 등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본격적인 전국 해수욕장 개장과 휴가철을 앞두고 소방방재청이 말하는 '물놀이 안전수칙과 응급처치법'을 살펴본다.

준비운동은 수영 중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해줄 수 있다. 물에 들어가기 전 손, 발 털기 등 가벼운 준비운동을 반드시 마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구명 조끼도 착용해야 한다. 물에 들어갈 때는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심장에서 먼 순서대로 다리, 팔, 얼굴, 가슴 순서대로 물에 적시며 들어가야 몸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배가 고플 때나 식후에는 물놀이 피해야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배가 고플 때 혹은 식후에는 물놀이를 피해야 한다. 물놀이 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길 때에는 즉시 물 밖으로 나와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물이 차거나 근육이 피로할 때엔 경련이 흔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련이 발생했을 경우 몸의 힘을 빼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신속히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자신의 수영 실력을 믿고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물 깊이가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경계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해도 구조 경험이 없다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말고 소리쳐 주위에 알려야 한다.

물놀이 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빠르고 적절한 응급 처치가 중요하다. 구조요원 또는 119에 구조요청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개인이 인공호흡 등 간단한 응급대처법을 숙지한다면 물놀이 사고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거나 귀 가까이에 입을 대고 "괜찮으세요?"라고 큰 소리로 말해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환자의 반응을 확인한 후 119에 신고하고 AED(심장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다.

구조대원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사이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한다. 환자의 복장뼈(흉골) 아래 2분의 1지점에 손꿈치를 위치시키고, 팔 전체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수직으로 15~18초 이내로 압박해주면 된다. 그후 머리를 젖히고 환자의 기도를 개방해준다. 기도를 개방한 후 인공호흡을 2회 정도 실시하는데 1회에 1초 정도 호흡을 불어넣어 준다. 이때는 호흡을 너무 많이, 빠르게 불어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든 단계를 마치면 10초를 쉰 후 같은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4번 더 반복해서 실시해준다.

소방방재청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과 응급처치법을 담은 어플리케이션 '물놀이 go!'를 지난해부터 제공하고 있다. 물놀이 안전수칙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물놀이 go!' 앱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구명조끼 착용법 ▲119 구조요청 바로 연결 등의 기능을 담고 있다. 이 앱을 통해서 소방방재청이 제공하는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인 '심폐소생술 APP'도 다운받을 수 있다. G

글·이현민 인턴기자

여름철 재난대비에 바쁜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올해는 같은 사고 되풀이 안 될 겁니다”

유난히 덥고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올 여름. 가슴 졸이며 초조하게 재난에 대비하는 기관이 있다. 소방방재청이다. 올 여름 집중호우와 물놀이 안전대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소방방재청은 전국 저지대 주택 상가 4만1천5백70세대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서울 세종로 지하주차장에 1만5천톤급의 저류지를 만들었으며, 전국 1천7백49개소의 물놀이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전담제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3대째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그는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갖춰 선제예방체계를 구축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기환(57) 소방방재청장. 그의 집안은 3대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가족’이다. 1977년 4월 1일 소방사로 공직에 입문, 1979년 소방간부후보생 2기를 거쳐 공직에 본격 입문한 이 청장은 2002년 대구 동부소방서장, 2008년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2009년 소방방재청 차장을 거쳐 2011년 소방방재청장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재난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친서민 현장중심의 소방방재 정책’을 적극 추진해온 그는 “재난에 대한 현장중심의 대응체계를 갖춰 선제예방체제를 구축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7월 1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소방방재청장 집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올해도 우리나라에 태풍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를 거쳐가는 태풍은 한 해 평균 3~25개정도입니다. 이 중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2~3개가량 됩니다. 지난 2010~2011년 두 해 연속 우리나라에 집중호우가 온 것을 고려하면, 올해도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방방재청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2010~2011년 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장기과제로 분류된 7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구가 끝났습니다. 소방방재청은 항구복구체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고가 난 곳에서 다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제로(0)로 하자는 것이지요. 2010~2011년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자신합니다.”

지난해에는 우면산 산사태, 광화문 물바다 등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면산의 위험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에 문제가 발생했던 곳에서 다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산사태 특별관리구역을 2천96곳에서 2천5백87개소로 확대하고, 전담 관리자를 복수로 지정해 관찰하고 있으며, 저지대 주택·상가 5만9천4백85세대 중 4만1천5백70세대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또 전국 지하철 역사 5백72개소에 빗물유입 방지 시설을 갖췄고, 올림픽도로나 강변북로 등 2백45개 침수 예상도로에 대해 긴급통제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광화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화문은 지난 2년동안 물에 잠겼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는 세종로 지하주차장에 1만5천톤급의 저류지를 만들어 만반의 채비를 갖췄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광화문 일대가 모두 아스팔트여서 물이 스며들어 빠지지 못한다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모두 대비책을 강구해뒀기 때문에 최소한 2010~2011년과 같은 강도의 집중호우가 내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상청과 호흡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상청과는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소방방재청으로 매일 자료를 보내주고 있지요. 기상청의 자료 외에도 미국, 일본의 기상 정보를 취합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3시간 전에는 기상이변 상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날씨의 특징은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온다는 점입니다. 구름이 서울 전체를 다 덮는 것이 아니라 용산이면 용산, 강남이면 강남 하는 식의 국지성 호우가 많아지는 것이죠. 이런 국지성 호우는 사실 기상청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태풍은 경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올 여름은 무척 더울 것이라고 합니다. 물놀이 대책마련도 각별할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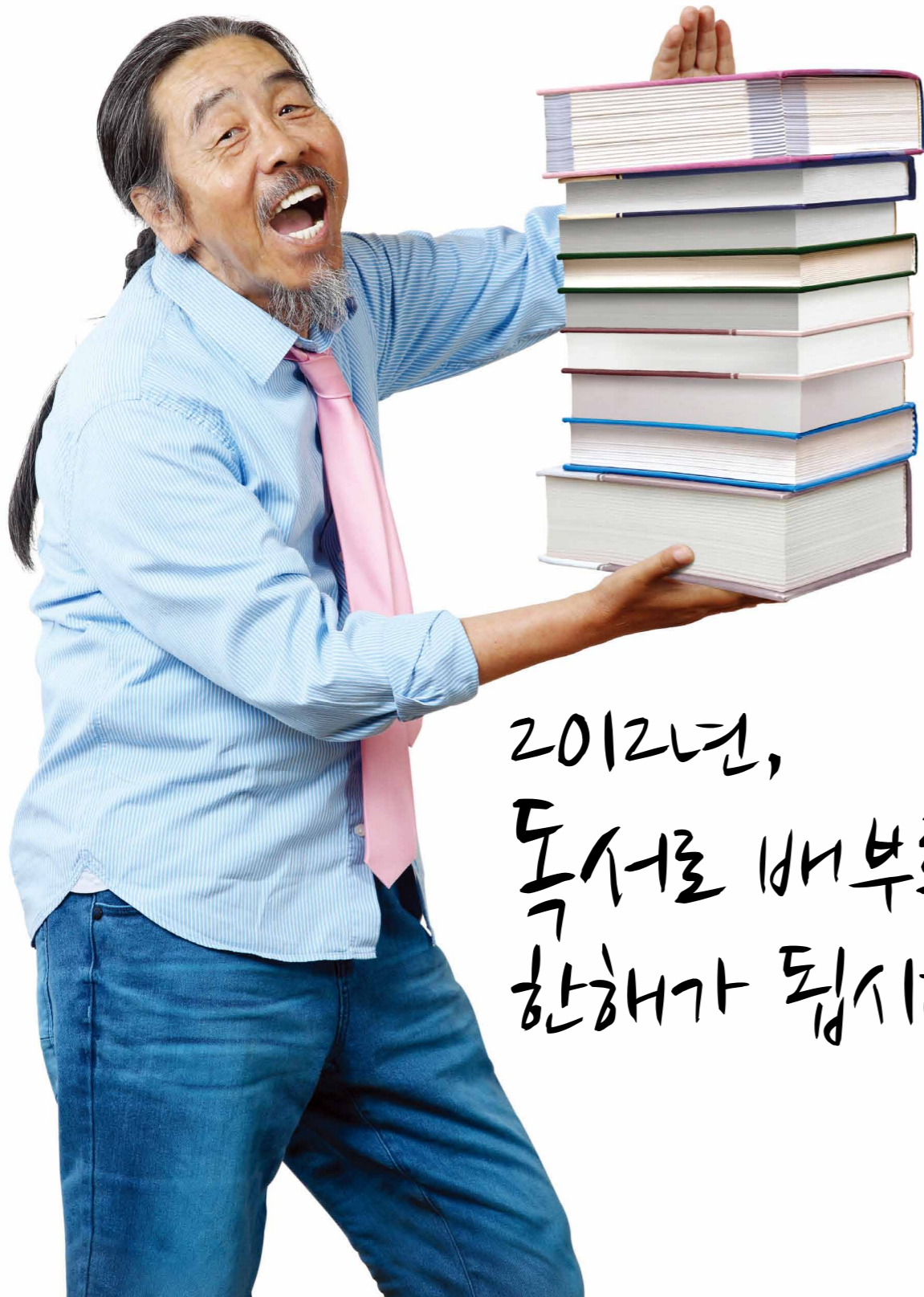
“전국 1천7백49개소의 물놀이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전담제를 실시, 예방점검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합쳐 11만명의 안전요원을 확보했으며, 5천명의 물놀이 관리요원을 고정 배치해 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8년 이전까지 매년 150명 규모였던 물놀이 사망자가 2009년 68명, 2010년 57명, 2011년 52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14억원의 정부예산을 특별히 지원받아 물놀이 지역에 구명조끼, 튜브 등의 안전시설을 마련했고, 야간에도 119 구조대원을 배치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취약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소방공무원들은 매년 6~8명이 순직하며 3백80명이 다칩니다. 소방공무원 사후에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소방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2백5억원을 시·도에 교부했으며, 소방장비 품질 개선을 위한 예산 5억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았으며,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현장인원 6천9백54명을 확충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치료에도 중점을 뒀습니다. 이제까지는 다친 사람을 3년밖에 치료해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해줍니다. 또 5억8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며, 다친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을 치료해주는 보훈병원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5.1킬로미터 길이의 배후령터널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3대째 소방가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좀 독특할 것 같은데요.

“선친은 40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저는 35년, 아들이 2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친께서는 그 시절 대구 동부소방서장을 지내셨는데, 저도 2002년 같은 곳에서 소방서장을 맡아 부자가 같은 지역 소방서장을 역임한 특이한 이력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은 옛날보다 근무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친이 일하실 땐 무전기도 변변치 못해서 불이 나면 사람이 뛰어와서 사고를 알려줬습니다. 보호장비도 없이 맨얼굴로 불 속에 뛰어들어, 화재를 진압하고 나면 얼굴이며 몸통이 온통 숯검정으로 시커멓게 돼 있곤 했습니다. 그런 선친의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나는 소방관이 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소방관으로 3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 녀석도 저랑 똑같아서 ‘소방관 안 하겠다’고 하더니, 피는 못 속이나 봅니다.”

글·이범진 기자

기획특집

산도 좋고 물도 좋아라 떠나는 여행길은 즐겁다

직장과 가정, 학교에서 참으로 바쁘게 살아온 당신,
잠시 삶에 쉼표가 되어줄 여행의 즐거움을 누려보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볼 것도, 갈 곳도 많습니다.
벌레 소리와 별빛 감상을 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여행,
하룻밤 유목민의 꿈을 꾸어보는 산촌·강촌의 캠핑장들,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산림욕과 숲길 걷기….
4대 강변을 따라 달리는 자전거여행, 정겨운 지역축제들은 어떨고요.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바다의 축제 여수엑스포도 한창입니다.

일러스트 · 유현호

나와 가족의 삶에 활력을 찾기 위한 여름휴가 여행이 내수경기도 살릴 수 있다. 강원도 원주 치악산 금대오토캠핑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텐트를 치고 휴가를 즐기고 있다.

이경호 기자

배낭을 메고~ 국내로 여행을 떠나세요

1인당 하루씩 국내여행 더 하면 2조5천억원 유통·일자리 5만개 창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부가 국내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재연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국내관광이 내수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 한 사람이 하루 더 여행하기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내수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임진나루 일대 임진마을은 임진강의 절경과 함께 자연산 황복, 참게장 등 맛깔진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주변의 일명 '도리뱅뱅이마을'은 민물고기를 튀겨 양념한 도리뱅뱅이로 유명하다. 인근에 정지용 문학관, 신라 고찰 용암사 등이 있어 문학과 역사의 깊이까지 음미할 수 있다.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과 서천 합류지점인 경북 영주시 문수면의 무섬마을은 물에 떠 있는 섬 같다 하여 붙은 이름으로, 마을 밖으로 통하는 외나무다리와 고택들이 옛 향기를 물씬 풍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9일 방송된 제93차 라디오연설에서 임진마을, 도리뱅뱅이마을, 무섬마을 등 여행지를 예로 들며 "올 여름휴가 때는 국내여행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국내여행을 강조했다.

정부가 앞장 '국내관광 5일 이상 참여'

"우리나라 구석구석에는 숨겨진 좋은 여행지들이 많다. 4대강 자전거길을 따라서 각 지역의 독특한 멋과 정취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임진마을 이외에도 ▲임실 구담마을 ▲무안 하늘백련마을 ▲진안 원촌마을 ▲함양 개평마을 ▲여수 백도 ▲신안 가거도 ▲여수세계박람회 등을 여름 휴가지로 추천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대통령이 국내여행을 강조한 이유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의 연평균 여행일수는 7일"이라며 "1인당 1일씩 국내여행을 더 하면 무려 2조5천억원의 돈이 더 유통되고 일자리도 5만개나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국내관광 소개 '2012 夏夏好好 캠페인' 진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 하루 더 여행하기'를 목표로 국내관광을 활성화할 경우 내수경제 회복에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3일 '국내여행을 통한 내수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주5일 수업제, 주40시간 근무제 등 국민 여가시간이 늘어났고, 순수 관광이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노력에 따라 국내관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정부가 솔선수범하기로 하고, 공무원(9만5천명), 공공기관 직원(2백88개 24만여 명)의 '국내관광 5일 이상 참여'를 목표로 국내여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국민이 일년 내내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른바 '1박2일' 여행을 통한 소통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민간기업과 협력해 직장 내 1박2일 여행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가족 간 1박2일 여행 활성화를 위한 자유로운 연가사용 확대 등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범국민 캠페인도 추진된다.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11개 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한 '2012 하하호호(夏夏好好) 캠페인'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정보화마을 '인빌',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산·어촌 체험마을, 국토해양부의 갯벌 생태여행, 환경부의 국립공원 생태관광 프로그램, 산림청의 숲길 체험프로그램 등 '2012 하하호호(夏夏好好) 캠페인'에 참여한 16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한국관광의 별' 선정을 통해 발굴된 33개의 명품 관광지와 소재들을 엮어 관광 상품화하고, '한국인이 꼭 해야 할 국내관광 100선(가칭)'도 선정해 홍보할 계획이다.

올 여름휴가 비용지출 3조8천여억원 전망

또 올 여름 최고의 여행지로 꼽히는 여수세계박람회를 취약계층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문화바우처' 소지자 관람 시 입장권 할인(보통권 성인 기준 3만3천원 → 1만8천원)을 해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여행바우처'를 활용해 취약계층의 단체관람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 여름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이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여행을 통한 내수경기 진작효과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연구원이 지난 7월 9일 발표한 여름휴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백명 가운데 51명이 올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8.5퍼센트는 국내 관광지를 둘러볼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사람당 약 22만원의 휴가비를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평균 여행기간은 '2.8일'로, 2박 3일이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활용해 올해 여름휴가 여행 총지출액을 추정한 결과 약 3조8천4백억원의 관광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6조3천3백81억원, 고용 유발효과 4만9천4백16명 규모로 추정됐다.

지친 일상에 활력을 주기 위한 휴가여행이 지역까지 웃게 만든다면, 올 여름 전국 어디든 하루쯤 떠나볼 이유는 충분할 것이다. G

글·박경아 기자

문의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충남 태안의 별주부마을에서 전통 고기잡이 방식인 독살체험을 하고 있는 피서객들. 이 마을에서는 갯벌체험도 가능하다.

어린 시절 추억여행… '인빌'에서 오감만족

인터넷으로 예약… 래프팅도 즐기고 갯벌에서 바지락도 캐고

〈1박2일〉이나 〈무한도전〉 같은 TV 예능프로그램의 인기 탓일까. 최근 들어 체험여행이 각광받고 있다. 거친 물살을 가르는 래프팅에 도전하고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며 더운 여름을 보내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 정부 주도로 전국에 조성된 정보화마을은 교통과 숙박은 물론 체험 프로그램과 예약 시스템까지 잘 갖추고 있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예약 마감이 되고 있다. 서둘러 문의해보자.

전국 농·산·어촌에는 체험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정보화마을(INVIL ; Information·Network·Village)이 3백64개 조성돼 있다. 정보화마을은 도농(都農) 간 정보격차 해소와 전자상거래 지원을 통한 주민 소득 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1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다.

현재 인빌쇼핑과 인빌체험을 통해 정보화마을이 올리는 총소득은 2009년 1백34억8천5백만원, 2010년 2백9억2천5백만원, 2011년 3백1억4천9백만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방문자 수도 2007년 7백71만명에서 2011년 1천4백2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연매출 5천만원 이상의 마을도 1백96곳이나 된다.

이같은 성공에 힘입어 지난해 4월에는 유엔으로부터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금까지 세계 1백5개국 관련 사업단(2만7천명)이 한국을 방문, 정보화마을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돌아갔다. 부르나이와 온두라스의 경우 국제컨설팅도 진행했다. 전 세계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동강애래프팅마을
여름철 래프팅 체험객 매년 5천명 넘어

'처음에는 마니(많이) 무서웠는데 나중에 타고 나니 재밌더라고요. 물에 빠지기도 하고 미끄럼틀도 타고 가이드 샘(선생님)들도 마니(많이) 착하시고 나중에 또 가고 싶어요.' (귀염둥이)

강원도 영월 동강애래프팅마을 방문객이 홈페이지에 남긴 후기다. 이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엄호진씨는 "래프팅을 즐기기 위해 6~8월 중 마을을 찾는 이가 매년 5천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 마을은 2006년부터 래프팅 사업을 시작했다. 래프팅은 자연경관이 빼어난 어라연계곡 11킬로미터 코스(2~3시간 소요)에서 이뤄진다. 현재 10대의 래프팅 전용 보트를 전문강사 10명이 1대씩 맡아 하루 2~3회씩 운항하고 있다. 휴가철을 맞아 평소 1인당 3만5천원이던 이용료를 2만8천원으로 할인하는 이벤트를 실시 중이다.

마을에는 황토로 지은 펜션 등 숙박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원룸형 펜션은 8인실(10만원), 10인실(12만원), 15인실(17만원) 등 규모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엄호진씨에 따르면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예약 상황은 아직 여유가 있다. 동강애래프팅마을에서 승용차로 30~40분 거리에 별마로천문대와 한반도 지형의 물돌이(선암마을)가 있어서 볼거리도 풍부하다.

별주부마을
전통 고기잡이 방식 '독살체험'으로 인기

충남 태안군 남면 천수만로에 위치한 별주부마을은 독살체험(1인당 2만원) 장소로 유명한 곳이다. 독살은 수심이 얕은 바다에 돌담을 쌓아 밀물 때 들어온 고기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전통 고기잡이 방식이다. 이 마을 독살에서는 우럭, 광어, 노래미 등 다양한 어종이 잡혀 인기가 높다. 잡은 물고기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회나 통구이로 요리해 먹을 수 있다.

별주부마을은 바지락이며 맛조개 등을 잡는 갯벌체험(1인당 5천원)도 가능하다. 마을에는 9층짜리 빌딩이 우뚝 서 있는데, 이곳에는 독살의 역사와 유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관과 부대시설인 샤워장이 잘 갖춰져 있다. 빌딩 꼭대기에는 전망대가 있어서 청포대해수욕장을 비롯한 서해안 일대의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별주부마을은 바로 앞에 청포대해수욕장이 있고, 멀지 않은 곳에 공룡박물관과 허브 농원인 팜 카밀레 등이 위치해 있어서 가족 단위의 여행 코스로 적당한 곳이다.

돌산갓김치마을
갯벌체험 실컷하고 여수엑스포도 보고

돌산갓김치마을은 전남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에 위치해 있다. 마을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곳은 돌산갓김치로 유명한 곳이다. 봄과 가을에 가면 밭에서 갓을 뽑아 김치로 담그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여름에는 갓밭에 옥수수를 심어 옥수수 따기 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마을 앞 갯벌에서 바지락, 맛조개, 모시조개 등을 잡을 수 있다. 이곳의 갯벌은 모래와 자갈이 많이 섞여 있어서 푹푹 빠지지 않는다. 윤상정 마을위원회 위원장은 "방죽포해수욕장이 코앞에 있고, 여수엑스포장이 승용차로 20분 거리에 있어서 올 여름 피서지로 우리 마을처럼 안성맞춤인 곳은 없을 것"이라고 자랑했다.

여수엑스포 기간에는 숙박시설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마을 주변에 8만~10만원대의 펜션이 있고, 1인당 8천원만 내면 하루 숙박이 가능한 마을회관이 있다. 템플스테이를 운영 중인 향일암도 승용차로 10분 거리에 있다. G

글·서철인 기자

정보화마을 http://www.invil.org

여름철 인기 만점인 인빌체험 베스트 20

마을명	체험명	비용	위치	연락처
부리수통마을	가족과 즐거운 래프팅 고고~	성인:2만3천원 어린이:2만1천원	충남 금산군 부리면 수통1길 17	041–753–3203
동강애 래프팅마을	동강애래프팅–할인 이벤트	2만8천원	강원도 영월군 문산2리 744	033–375–2720
구마이 곶감마을	구마이 오토캠핑장	텐트:2만원	경북 상주시 내서면 서만리 1013	054–533–0952
살둔마을	썸머야영캠프(물놀이 캠핑)	텐트:3만5천원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221–4	033–434–3798
궁평리마을	환상의 갯벌체험 속으로…	성인:7천원 어린이:5천원	경기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궁평항)	031–356–7339
별주부마을	태안 바닷가에서 즐기는 독살체험	독살:1인 2만원	충남 태안군 남면 천수만로	041–674–5206
속동갯벌마을	서해안 통통한 바지락 캐기	6천원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689(상황리 628–2)	070–7763–8450
동백꽃마을	갯벌 즐기기 체험	1만2천원	충남 서천군 마서면 합전길 77	041–952–6737
지족갯마을	바지락도 캐고 고둥도 잡고	성인:2만원 어린이:1만5천원	경남 남해군 삼동면 지족1리	055–867–1277
볏가리마을	갯벌체험	1만원	충남 태안군 이원면 볏가리길 62	041–672–7296
백학동마을	대나무물총 갖고 신나는 물놀이	5천원	전남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061–772–1073
해담마을	수륙양용차	1만원	강원도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2016	033–673–2233
부래미마을	맨손 물고기잡기	성인:2만3천원 어린이:2만2천원	경기도 이천시 율면 석산리 50	031–643–0817
술빛고을마을	명품한우 먹고 물고기 잡고	3만원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070–7787–1131
명심체험마을	여름체험(물놀이, 농촌체험)	2만원	충북 진천군 백곡면 명암리	043–532–7956
두루미 평화마을	시원한 백마고지를 찾아서(마을 체험)	성인:6만원 어린이:5만5천원(1박·래프팅 포함)	강원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180–5	033–455–4398
솔돌마을	신나는 여름체험(물놀이)	5천원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외가길 25 마을회관 2층	033–563–5945
삼원수약초	여름체험	1만원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상동7길 8	070–7716–7323
참전복 개도마을	갯내음과 함께 산행을(여수 백야도 출발)	1만원	전남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061–690–2288
돌산 갓김치마을	돌산갓김치마을 일일 어촌체험	7천원	전남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62번지	061–690–2989

농촌체험마을이 레포츠와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여름 휴가지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 영동군 '비단강 숲마을'은 앞으로는 강이 흐르고, 뒤로는 봉화산의 천연 휴양림이 펼쳐져 있다. 2인용 자전거타기·뗏목타기 등 레포츠 체험과 전통 농촌 문화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생생한 삶의 현장… "아이들이 신났어요"

역사·전통·자연·음식·자녀 체험교육의 '1석 5조' 멋진 휴가지

최근 급격한 인기를 얻고 있는 농촌체험마을은 농촌에는 경제적인 활기를 불어넣고, 도시민들에게는 정신적인 활력을 되찾아주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안겨준다. 더 나아가 세대 간의 단절된 문화를 연결하고, 도농(都農)이 소통하는 등 전통문화를 이어주는 새로운 대안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 여름 가족휴가는 농촌체험마을로 떠나보자!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농촌은 그 자체가 거대한 학습장이다. 어린 시절 고추를 따고, 다슬기를 잡고, 더덕을 캐고, 두부를 직접 만들어본 체험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된다. 농촌의 문화, 자연, 환경 등을 상품화한 농어촌체험에 도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아이들과 함께 당일 혹은 1박2일로 다녀올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을 소개한다.

양평 가루매마을
동네 전체가 자연학습장… 배 과수원 체험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 가루매마을에서는 제초제 같은 고독성 농약과 성장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반딧불이, 지렁이, 땅강아지, 두더지와 각종 곤충이 널려 있어 마을 전체가 생태학습장이다.

이 마을은 배 전문 재배농장으로 유명하다. 국내 최초로 배 잼을 개발해 발명특허를 취득하였고, 꿀이 들어간 배즙 음료 등을 개발해 인기를 얻고 있다. 배나무에 음악을 들려주는 독특한 농법을 적용해 배의 당도가 높고 과육이 연하며 맛이 무척 좋다고 한다. 이처럼 가루매마을은 모든 농산물을 좀더 환경친화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인들이 자녀와 함께 '농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잘 갖추고 있다. 배나무가 보이는 야외 체험장에서 나무젓가락을 이용한 고무줄 총 만들기와 시금치 가루, 단호박 가루, 포도즙 등 천연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색깔이 들어간 오색만두 빚기, 트랙터 타기, 딸기 따기, 감자전·두부전 만들기 등의 체험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농촌마을의 하루를 선사한다.

인근에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양평 레일바이크, 친환경농업박물관, 에벌레생태학교, 양평 5일장을 같이 둘러볼 수 있고, 연꽃이 장관을 이룬 세미원은 빼놓을 수 없는 관광 코스다. 이곳에서는 사계절 언제든지 자연을 관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자연과 하나 됨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 수 있다.

문의 garumae.farmstay.co.kr ☎010-4703-9300

곡성 가정마을
섬진강의 자연과 3백년 전통을 동시에 느껴

전남 곡성군 고달면 두가리 가정마을은 3백년 전 밀양박씨가 정착해 마을을 이룬 곳으로, 숲이 우거진 터에 자리를 잡은 마을이라 하여 '가정마을'이라고 불린다. 섬진강의 맑은 물과 주변지형 등이 어우러져 뛰어난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마을 숲 그늘에 앉아 흘러가는 섬진강을 바라볼 수 있다.

가정마을에서는 꽃이나 식물 등을 말려서 생활용품이나 액자 등으로 만드는 압화공예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맷돌을 이용한 두부 만들기, 인절미와 쑥떡 만들기 등 음식 만들기 체험은 입맛을 돋게 한다.

마을 앞에 야영과 래프팅이 가능한 청소년 야영장과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천문대가 있다. 섬진강 건너편에는 곡성 기차마을까지 증기기관차를 타고 여행을 할 수 있는 가정역이 있다. 섬진강변을 따라 6킬로미터의 자전거길도 있어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경험할 수 있다. **문의** gjvill.kr ☎061-363-1637

남해 문항마을
갯벌체험 1번지, 온가족 여름 휴가지로 제격

경남 남해군 설천면 문항마을은 바지락, 굴, 쏙, 우럭 조개, 낙지 등 수산물이 풍부한 곳으로 갯벌 출입이 쉬워 매년 수만 명의 체험객이 방문하는 어촌체험마을이다. 마을 앞바다에는 상장도와 하장도 두 개의 섬이 있는데, 만조 시는 어선을 이용해야 이동이 가능하나 간조 시는 육지와 두 개의 섬이 연결되는 길이 생겨 걸어 들어갈 수 있다.

섬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해안을 산책할 수 있고 고동, 게 등을 잡을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오면 어느 휴양지 못지않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갯벌에서 바지락, 굴, 우럭 조개, 낙지 등을 잡거나, 맨손으로 고기 잡기, 낚시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전국어촌체험마을 대회에서 최우상을 수상한 이력을 가졌다.

인근에는 5만여 점의 탈 관련 자료가 전시된 남해국제탈예술촌, 수많은 예술가가 경치 좋은 남해 바닷가에 모여 만든 해오름예술촌 등이 있다. 죽방렴 전망대에 가면 좁은 바다 물목에 대나무발 그물을 세워 물고기를 잡는 전통어업 방식인 죽방렴을 볼 수 있다.

문의 munhang.seantour.org ☎055-863-4787

글·이상흔 기자

가볼 만한 농촌체험마을

마을명	체험 내용	위치	연락처
양양 해담마을	뗏목 타기, 은어 잡기, 숲속 트레킹	강원 양양군 서면 서림리 128	033-673-2233
인제 고로쇠마을	리버버깅(급류타기), 민물고기 잡기	강원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268-7	011-364-4649
영동 비단강숲마을	과일잼 만들기, 사과 따기, 다도체험	충북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32-1	043-745-5432
서천 이색체험마을	솟대 만들기, 이색박물관·분재미술원 체험	충남 서천군 기산면 화산리 320	010-8841-2809
남해 다랭이마을	캠프파이어(소망등 날리기), 논농사 체험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895	010-4590-4642
진천 공예마을	도예(머그컵)·한지(방패연)·목공예	충북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043-532-3936
남원 달오름마을	달오름 소원빌기, 장 담그기, 박 타기	전북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541	063-635-2231
장수 주촌마을	논개역사체험, 민속놀이, 간장 담그기	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1013	010-5354-1128
광양 도선국사마을	한지공예 체험, 매실주 만들기	전남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1192-8	061-762-5159
청송 덕천마을	천연염색, 민속놀이, 한지체험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참소슬마을	054-873-6300
안동 저우리마을	사군자, 민화, 국궁 체험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129-1	011-507-3611
연천 나룻배마을	배 따기, 소망등 만들기, 인삼 캐기	경기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160-4	031-833-5005
횡성 산채마을	곤드레밥, 올챙이국수 만들기, 공방체험	강원 횡성군 둔내면 삽교1리 732	033-345-9196
홍성 문당환경마을	고구마 캐기, 트랙터 타기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405	041-631-3538
담양 무월마을	대나무숲, 죽로차, 토우체험	전남 담양군 대덕면 금산리 무월마을	061-381-1607
제주 청수마을	승마, 보리수제비, 보리빙떡 체험	제주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청수마을	064-773-1949

한국농어촌공사 웰촌포털 www.welchon.com
농림수산식품부 www.rural20.kr

어린이들이 경기도 화성 궁평리 마을 갯벌에서 조개잡기 체험을 하고 있다. 궁평리는 자연훼손이 거의 없이 서해안의 해안과 갯벌을 잘 보존하고 있다.

'바다의 허파' 갯벌… 생태체험 심장부로

주민들이 직접 운영 … 지역 특성 살린 '색깔 있는 체험' 가능

즐기고 느끼고 실천하고! 가족단위 피서로 생태여행이 각광받고 있다. 생태여행은 아이들이 즐겁게 놀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체험 후 자연보호 활동에도 동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 여름 의미 있는 휴가를 보내고 싶다면, 갯벌 생태여행을 추천한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 드넓은 갯벌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갯벌은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생태적 가치도 높아 세계 5대 갯벌로 꼽힌다. 특히 증도, 순천만 등의 갯벌은 람사르 협약에 등록될 만큼 세계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다.

갯벌 생태여행이 새로운 국내여행 코스로 각광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세계적 수준인 우리 갯벌의 가치를 알리고 갯벌 보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갯벌을 활용한 여행을 장려하고 있다.

증도, 강화도, 무안이 시범지역으로 선정, 갯벌생태전시관을 운영하며 매년 생태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갯벌 생태관광은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것이 특징. 관광객은 지역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주민들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어,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 강화도
여의도 53배 최대 갯벌… 체험행사 2차례 예정

강화도는 갯벌 면적이 여의도의 52.7배로 국내에서 가장 넓고, 수도권에서 가까워 당일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해 매년 철새 보호를 위한 행사가 열리는 생태 자원의 보고다.

갯벌 체험여행은 강화도 동검리마을에서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7~9월, 2차례 체험 행사가 예정돼 있다. 행사에서는 동검도 사자발 약쑥을 이용한 천연염색, 향주머니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사자발 약쑥은 독특한 모양과 향기로 강화도를 대표하는 특산품이다. '이야기 있는 마실길 걷기'라는 주제로 마을 전체를 돌아보며 동검리의 갯벌과 갯벌 생태계에 대해 배우게 된다. 맨손으로 장어잡기 체험을 한 후 맛보는 장어도 여행의 흥겨움을 더할 것이다. 1박2일 일정으로 참가비는 1인당 5만원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강화갯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강화갯벌센터 www.tidalflat.ganghwa.incheon.kr ☎032-937-5057

전남 신안군 증도
느려서 더 행복한 갯벌 … 염전 체험도 함께

증도는 2007년 12월 아시아에서 처음 지정된 슬로시티로 드넓은 갯벌을 가지고 있어 생태여행을 즐기기 제격인 곳이다. 증도의 갯벌은 2011년 국내에서 다섯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돼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증도는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갯벌 생태여행 파트너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갯벌과 대규모 염전, 우전해변, 해송 숲 등 다양한 지역 명소를 활용해 가장 활발하게 갯벌 생태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증도의 갯벌 생태여행은 증도 갯벌생태전시관 관람부터 시작된다. 전시관을 둘러보며 갯벌의 가치, 갯벌 생물 종류 등 전반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다. 그 후에는 신비의 바닷길이라 불리는 노두다리를 건너본다. 노두다리는 만조에는 바다에 잠기지만 간조에는 드러나는 다리다. 본격적인 생태 체험을 하려면 짱뚱어다리 갯벌을 찾아 '갯벌 느리게 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 갯벌에 사는 다양한 동·식물을 보고 만지면서 생물의 다양성을 배우며 갯벌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다.

국내 최대 단일 염전인 태평염전을 방문해 천일염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는 일정도 있다. 천일염을 이용한 손목매트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자연 염생식물 군락지를 찾아가면 퉁퉁마디(함초), 칠면초 등 염생식물을 관찰하면서 염습지의 가치와 보전, 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도 있다.

슬로푸드 체험은 증도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주민들이 손수 만든 음식을 즐기는 식도락 체험이다. 친환경 전기차를 타면서 증도를 한 바퀴 돌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힘쓰는 증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증도 우전해변에 조성된 '천년의 해송 숲길'을 걸으면서 바다와 숲을 동시에 느끼고, 밤하늘의 별을 세는 '별이 빛나는 밤에' 프로그램까지 참여하고 나면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느끼는 생태여행이 마무리된다.

문의 www.slowjeungdo.com 증도 갯벌생태전시관 ☎061-275-8400

증도 갯벌 생태체험에서는 친환경 전기차를 타고 섬 전체를 둘러볼 수 있다. 도시의 빠른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전남 무안 도립공원
전국 첫 습지보호구역 … 백련지 연꽃축제도

무안의 갯벌은 2001년 전국 최초로 습지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농경지와 갯벌이 공존해 농·어업 현장을 모두 찾아가볼 수 있는 곳이다. 세발낙지의 고장으로 유명해 무안 생태갯벌센터에서는 세발낙지 잡기, 바지락 잡기, 굴 캐기 등의 해양 생태계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생태갯벌센터가 위치한 용산 마을은 도리포와 조금나루 유원지가 모두 10분 거리에 위치, 다른 관광지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조금나루 유원지에는 대형 백사장과 소나무 숲이 4킬로미터 넘게 이어져 있어 장관을 이룬다.

7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무안의 회산 백련지에서 연꽃축제도 열린다. 7월 말 무안을 찾는다면 갯벌 체험도 하고 은은한 연꽃의 향기에도 취할 수 있는 휴가를 보낼 수 있다. 국토해양부와 연계된 갯벌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8월부터 12월까지 3~4회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숙박, 교통 포함 10만원 정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G

문의 무안 생태갯벌센터 http://ppul.or.kr ☎061-450-5633

글 · 이현민 인턴기자

12개 마을 소개 갯벌정보시스템 운영

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갯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tidalflat.go.kr)에는 12개 갯벌 체험마을과 어촌 체험마을이 소개돼 있다. 지금은 증도와 강화도, 무안에서 시범적으로 갯벌 생태여행이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19개 국립공원에서 진행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국립공원의 자연과 문화를 한꺼번에 느낄 수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의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기는 설악산 기행'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숲 생태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의 '아빠와 함께하는 1박2일 야영캠프'에서는 자연과 문화, 역사를 한꺼번에 느낄 수 있다. 캠프에 참가한 가족들이 사무소 직원의 지도에 따라 숲 속 식물로 만든 지도를 만들고 있다(왼쪽 사진). 경남 남해 두모마을에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다함께 한려해상 청정바다 보물찾기'가 진행되고 있다.

자연 속 생태관광… "말 그대로 착한 여행"

1박2일 야영캠프 · 절경 즐기는 당일형 등 색다른 프로그램 체험

우리나라에는 지리산, 설악산을 비롯해 변산반도와 한려해상 등 환상적인 경관과 풍부한 생태 자원을 자랑하는 19개 국립공원이 있다. 당일형 체험 프로그램에서 1박2일 숙박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다. 올 여름에는 국립공원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그대로 느끼며 보존하는 생태관광을 떠나보자.

전국 19개 국립공원사무소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해 일반인의 국립공원 탐방 및 체험을 돕고 있다. 생태관광이란 국립공원 일대의 자연과 문화를 보고 느끼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을 그대로 보전하는 방법으로 국립공원을 즐기는 관광방법이다. 풍부한 생태 자원을 관찰하고 수려한 경관을 감상하고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자세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내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에코투어 홈페이지(ecotour.knps.or.kr)에서 찾아보면 된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참가할 수 있는 대신, 프로그램마다 최소 출발인원이 정해져 있고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국립공원사무소로 문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19곳 중 경주, 변산반도와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한려해상을 제외한 14곳은 모두 산 지역이다. 산 지역 생태관광은 하루 각 국립공원의 특색 있는 자연 생태를 관찰하는 당일형 프로그램과 숙박형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국립공원의 '반달가슴곰과 함께 걸어보아요'(문의 061-780-7726, 7728)에 참여하면 하루 동안 지리산 속에서 자연과 함께한다. 오전에 멸종위기 동물 반달가슴곰과 만나 지리산 생태 자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화엄사로 이동해 문화해설사와 함께 견학한다. 오후에는 성삼재로 이동해 노고단까지 걸어 아름다운 지리산을 느낀다.

지리산 · 설악산 국립공원 하루 맛보기 '쏠쏠'

백두대간의 중심부에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을 하루 동안 즐기려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기는 설악산 기행'(문의 033-636-7700)을 예약하면 된다. 조계종 3교구 본사인 신흥사에서 역사 해설을 들으며 출발하는 일정은 설악산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권금성까지 이어진다.

권금성을 지나 비룡폭포 자연관찰로를 거닐며 풍부한 자연생태 자원을 관찰하고 나면 짧으나마 설악산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의 황태환 탐방담당은 "설악산과 함께 강원도 내 관광지를 함께 들르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설명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국립공원에 머물며 하룻밤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는 숙박형 프로그램이 제격이다. 내장산국립공원의 '내장산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문의 063-538-7874)은 어린이가 있는 가족을 위해 만들었다. 첫째 날에는 가족이 함께 숲 속 명상에 잠기고 원적골자연관찰로에서 자연생태 자원을 찾아내는 게임을 한다. 초가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가족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깊은 봉우리와 계곡이 수려한 산세를 만들고, 천연기념물인 정이품송과 하늘다람쥐 등 풍부한 생태 자원을 자랑하는 속리산국립공원의 '아빠와 함께하는 1박2일 야영캠프'는 최근 부는 캠핑 열풍을 따라 자연과 문화, 역사를 한번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무엇보다 캠핑하고 싶어도 장비가 없어 떠나지 못한 가족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에게는 공원사무소에서 캠핑 장비를 무료로 대여해주기 때문이다.

첫째 날 점심 무렵 충북 보은군 보은 전통시장에서 가족들이 함께 장을 보고, 오후에는 속리산을 탐방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는 기마순찰대가 있는데, 생태관광에 참여한 가족들은 순찰대의 말을 타고 속리산 주변을 둘러볼 수 있다.

야생동물을 관찰하는 시간이나 법주사 견학 등 다양한 일정이 준비돼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이의철 탐방담당은 이 프로그램이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야생동물을 관찰하면서 속리산 일대의 생태, 문화를 그대로 느끼는 말 그대로 착한 여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선 '청정바다 보물찾기'

여름을 한껏 즐기려 바다를 찾을 때는 해상국립공원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다함께 한려해상 청정바다 보물찾기'는 환경부에서 선정한 자연생태 우수마을인 두모마을에서 전통어로 방법인 '개매기'를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개매기는 갯벌이 만든 물길, 갯고랑에 그물을 쳐놓고 밀물에 밀려든 물고기가 썰물 때 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 손으로 잡는 낚시 방법이다.

개매기 체험이 끝나면 한려해상의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천연기념물 팔색조와 산호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단고둥을 이용해 기념품을 만든다. 물때에 따라 수시로 일정이 변경되기 때문에 예약 전에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G

글 · 김효정 기자

자세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내용은 에코투어 홈페이지
ecotour.knps.or.kr

-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과 함께 걸어보아요'
  참가비 1만2천원
  문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061-780-7726,8
- 설악산국립공원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기는 설악산 기행'
  참가비 성인 1만1천5백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 6천6백원
  문의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033-636-7700
- 내장산국립공원 '내장산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
  참가비 성인 4만2천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 3만3천원
  문의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063-538-7874
- 속리산국립공원 '아빠와 함께하는 1박2일 야영캠프'
  참가비 텐트 1동당 1만5천원 ※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식대 별도
  문의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043-542-5267~9
- 한려해상국립공원 '다함께 한려해상 청정바다 보물찾기'
  참가비 성인 2만원, 아동 1만5천원
  문의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055-860-5812

바다 못잖은 '더위 사냥꾼' 숲이 부른다

트레킹도 즐기고 피톤치드와 음이온으로 몸과 마음에 휴식

여름 피서 하면 단연 푸른 바다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숲도 이에 못지않은 '더위 사냥꾼'이다.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는 전국 곳곳에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 같은 시설들이 있다. 숲속에서 나무 사이로 난 길을 걸으며 피톤치드와 음이온으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알짜배기' 숲 체험 여행지를 소개한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인기가 높아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숲은 한층 더 가까운 휴식공간으로 다가왔다. 여기에 참살이(웰빙)과 힐링(치유)에 대한 관심은 숲을 건강을 위한 휴양지로서 자리를 굳건히 만들었다. 이 같은 흐름을 타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앞 다퉈 자연휴양림과 숲 트레킹 코스 등을 조성하고 정비하는 분위기다.

숲을 체험하고 즐기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 방법은 단연 트레킹이다. 전국 곳곳의 국립공원을 비롯해 자연휴양림에는 어김없이 '명품 숲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다. 그 중 가장 가볼 만한 곳은 대전 계족산 황톳길이다.

계족산 내 장동삼림욕장에는 14.5킬로미터에 걸쳐 황톳길이 나 있다. 이 길은 '에코힐링 로드(Echo-healing road)'로도 불린다. 자연과 생태를 통해 몸을 치유한다는 뜻이다.

'치유의 숲'에서 숲길걷기 등 체험

세계에서도 드물게 10킬로미터 넘게 흙길을 걸을 수 있는 이 길은 음악회와 함께 매년 황톳길 맨발 축제를 개최하고 주말이면 5천명 이상, 연간 20만명이 찾는다.

빠른 걸음으로는 2시간 반, 쉬엄쉬엄 숲을 구경하며 걸으면 4시간 정도 걸린다. 입구를 제외하면 시종일관 평탄한 흙길이 이어져 아이들과 함께 걷기에도 매우 좋다.

조선 DB

대전 계족산 장동삼림욕장 내 황톳길은 자연과 생태를 통해 몸을 치유한다는 '에코힐링 로드'로도 불린다.

요즘에는 숲을 '치유'의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나무가 발산하는 피톤치드 성분 덕분이다. 경기도 양평 산음, 전남 장성, 강원도 횡성에는 '치유의 숲'이 운영되고 있어 한번 가볼 만하다. 치유의 숲이란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적합한 환경과 조건을 갖춘 숲을 산림청이 인증한 곳이다.

치유의 숲 체험은 당일형으로 운영되며,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는 1박2일과 2박3일의 숙박형으로 나뉜다. 숙박형 프로그램은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되며 치유의 숲길 걷기, 스트레스 예방·관리법 강의, 물 치유, 아로마 호흡법, 맨발 걷기 등을 실시한다.

강원 횡성 숲체원 내에 있는 청태산 치유의 숲에서는 '포레스트 힐링센터'를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건강측정실, 물치유실, 열치유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총 23킬로미터에 달하는 숲길은 삼림욕하기 최적의 장소다. 정상까지 데크로드가 조성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울창한 편백나무로 유명한 장성 치유의 숲에는 10.2킬로미터의 치유숲길이 테마별로 꾸며져 있다. 산림치유 운영요원, 숲 해설가, 등산 안내인 등을 배치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자녀와 함께라면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해보자.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은 7월 21일부터 8월 18일까지 반딧불이 체험행사를 연다. 이 행사에서는 가족과 함께 잣나무숲 탐방로를 걸으며 반딧불이를 비롯해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한다.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063-322-1097)에 신청하면 숲 해설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나무 클라이밍' 등 다양한 행사도

서울시 강동구의 '아토피 숲 체험 교실'은 생태교육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강동구보건소에서 아토피 예방교육을 받은 후 인근 산으로 이동해 나무와 야생화 등 자연생태에 관해 배운다. 6~1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8월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전에 진행한다. (02-2224-0765)

경기도 연인산도립공원이 운영하는 숲 체험 프로그램인 '용추계곡 소릿길 따라 숲속여행'은 지난 7월 1일 환경부에서 부여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받았다. 이 체험 프로그램은 용추계곡 소릿길을 따라 걸으면서 우리 토종 꽃과 나무, 텃새와 철새 등 숲속 생물을 관찰한다. 연인산도립공원에서는 '용추계곡 소릿길 따라 숲속여행' 이외에도 아토피 가족캠프 등 7종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볼 만한 국립자연휴양림 체험 프로그램

휴양림	체험 프로그램	일시	체험 비용	문의
가리왕산	목걸이 만들기, 솟대 만들기 등	~10월 31일	1천5백~2천원	033-562-5833
검마산	야생화 화분 만들기, 야생화 분화 만들기 등	~10월 30일	1천5백~7천원	054-682-9009
남해편백	목걸이 만들기, 와이어 공예 등	~11월 30일	1천5백~3천원	055-867-7881
낙안민속	천연염색 체험	~10월 30일	1천5백~3천원	061-754-4400
대야산	솟대 만들기, 솔방울 만들기 등	~10월 30일	1천5백~2천원	054-571-7181
두타산	피리 만들기, 솟대 만들기 등	~11월 30일	1천5백~2천원	033-334-8815
대관령	열쇠고리 만들기, 참숯 매듭 만들기 등	~11월 30일	1천5백~9천원	033-641-9990
방장산	생태미술, 우드버닝 체험 등	~11월 30일	1천5백~8천원	061-394-5523
속리산 말티재	나뭇잎 잎맥공예, 부들공예 체험 등	~11월 30일	1천~2천5백원	043-543-6282
중미산	오리엔티어링 (20명 이상 단 체 대상)	9월 1일 ~ 11월 30일	성인 1만원, 학생 6천원	031-774-8552

자료 산림청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나무 클라이밍'이라는 이색적인 레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무 클라이밍은 등반자가 직접 나무에 올라 숲을 바라보며 자연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이용객의 연령 및 난이도에 따라 코스를 초급(어린이, 청소년 이상), 중급(청소년 이상)으로 구분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매주 수~일요일 1회(오후 2~4시) 운영하며, 단체 체험객은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어른을 위한 숲 체험도 있다. 강원 인제에 위치한 국립방태산자연휴양림에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말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10월말까지 휴양림 내에서 화전민체험, 전통다례체험, 꽃우편엽서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숲 해설가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국립방태산자연휴양림(033-463-8590). G

글 · 손수원 (월간 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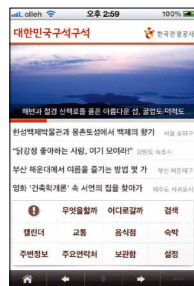
문의 국립자연휴양림 www.huyang.go.kr ☎1588-3250
제주절물자연휴양림만 jeolmul.jejusi.go.kr ☎064-721-7421
산림청 www.forest.go.kr, 산림청 숲에온 www.foreston.go.kr,
국립공원관리공단 knps.or.kr, 사단법인 숲연구소 www.ecoedu.net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휴가 어디로 가지?"… 앱으로 고민 해결

여행정보·4대강 투어·여수엑스포 등 보물 같은 정보 가득

휴가철이 다가오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게 된다. 바쁜 현대인이 휴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긴 어려운 일이다. 스마트폰으로 여행 장소를 미리 가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국내 곳곳의 여행지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한국관광공사,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만든 앱을 이용하면 전국의 유명관광지부터 명물 음식거리까지 지역별·테마별로 한 번에 여행계획을 짤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복잡한 휴가계획을 간단히 해결하는 도우미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발한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은 종합적인 국내 관광 정보를 제공한다. 앱에서 제공하는 메뉴는 국내 여행전문가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 모은 정보다. 복잡한 휴가계획을 간단하게 세울 수 있는 좋은 참고자료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전혀 정하지 못했다면 '추천! 가볼 만한 곳' 메뉴로 들어가본다. 각 달에 맞춰 가볼 만한 곳을 대여섯 군데씩 소개해놓았다. 여행지에 대해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당일, 1박2일 등 여행 일정에 맞춰 코스도 추천한다. 교통, 숙박, 식당 등 필요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한눈에 휴가계획을 짤 수 있다. 7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울릉도와 통영 대매물도, 인천 굴업도·덕적도 등을 소개했다.

아이와 함께라면 '교과서 속 코스 여행' 메뉴도 유익하다. 강화, 경주, 부여 등 각 도시에 있는 유적지·박물관 등을 소개하고 적당한 동선을 추천해놨다. 예를 들면 경주를 선택하면 불국사·석굴암부터 감은사지, 안압지 등 교과서에 등장하는 곳을 이틀 일정으로 볼 수 있는 코스가 제시돼 있다. 이외에도 전국의 명물 음식거리를 모아놓은 '음식 테마거리' 메뉴도 유익하다. 가게 이름에 추천메뉴, 가격까지 친절히 알려준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4대강 도우미
코스·소요시간·목적지 날씨 등 한눈에 '쏙'

휴가 때 4대강 자전거 종주를 해보면 어떨까. '4대강 도우미' 앱은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4대강과 경인 아라뱃길을 자전거로 종주하려는 이에게 꼭 필요한 앱이다. 코스, 소요시간, 교통편 안내, 목적지의 현재 날씨 정보 등 자전거 여행의 필수적인 정보를 찾기 쉽게 제공한다. 제시된 코스를 도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 기록을 잴 수도 있다.

'자전거 테마코스' 메뉴는 '추억 만들기 길', '강변오솔길' 등 테마별로 코스를 안내한다. 가려는 4대강 코스 주변의 유적지와 관광명소도 알려줘 유익하다.

'음성듣기' 메뉴는 여행의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4대강 코스를 돌다가 해당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역사적 유래와 해당 장소와 연관된 시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엑스포 투어(Expo Tour)
전시관 소개·다양한 문화행사 정보 제공

휴가 기간 동안 여수엑스포를 방문하고 싶다면 '엑스포 투어' 앱을 내려받으면 좋다. 각 전시관 소개는 물론 위치 정보, 추천 관광코스, 문화행사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다. '추천 관광코스'는 '1박2일 코스' '바다를 중심으로 한 동선' '연인들을 위한 동선' 등 다양한 코스의 소요시간과 대기시간을 제공한다. 엑스포장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다.

각종 문화행사 정보도 제공한다.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 일정을 쉽게 알 수 있다. 공연을 구경하다 다음 관람할 전시관의 대기시간이 궁금하다면 '전시관 소개'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G 글·하주희 기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50년 넘는 전통의 한식 명가를 모았다

이문 설농탕 등 원조집 1백곳 선정…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래된 한식당〉 출간

1904년 문을 열어 1백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 '이문설농탕', 1910년 개업하여 나주곰탕의 명성을 이어온 전남 나주 '하얀집', 실향민의 설움을 달래준 함흥냉면의 본가 부산 '내호냉면', 그리고 4대를 이어 비빔밥을 만들어온 울산 '함양집', 해남 떡갈비 90년의 자존심 '천일식당'…. 때론 한국인의 배고픔을 달래주고, 때론 추억을 선사하며 우리의 식문화를 이끌어온 한식 명가들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이 역사와 전통 그리고 자긍심으로 똘똘 뭉친, 50년 이상된 한식 명가 1백곳을 모아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래된 한식당〉이란 책을 펴냈다.

총 2백48쪽 분량인 이 책에는 대한민국 한식당의 역사를 조망하는 프롤로그와 한식당을 시작하게 된 동기, 개점연도, 창업주, 현 경영주, 업종, 대표메뉴 및 음식특징 등 개별 한식당의 창업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생생한 스토리가 실려 있다. 부록으로 한식당의 옛 사진과 색인이 붙어 있다.

2백48쪽 분량… 전자책으로 제공도

이번에 선정된 1백곳의 한식당 경영주들은 반세기 이상의 세월 동안 고객들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아온 비결로, ▲각 지역의 대표 식재료의 이용 ▲전통 조리법 고수 ▲후한 인심과 한결같은 서비스 등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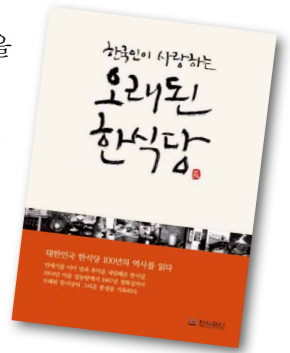
이문설농탕의 전성근 대표는 "설렁탕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좋은 재료와 오래 끓이는 정성, 그 이상의 좋은 비법이 따로 없다"며 "자연 속에서 방목하며 키운 한우의 머릿고기, 양지머리, 도가니, 우설, 사골, 잡뼈 등을 넣고 푹 끓여낸 깊은 맛이 오랜 역사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인기비결"이라고 말했다.

부산 내호냉면의 이춘복 대표는 "1919년부터 3대째 이어져 내려온 가업인 만큼 정통 북한식 냉면 조리법을 고수한 것이 고객들에게 통했다"며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실향민들에게 전통의 맛은 위로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책 속에는 세월의 파고 속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지켜온 한식당 경영주들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일제강점기의 애환, 전쟁의 화마, 뜻하지 않는 화재, 재건축에 따른 이전 등 한국 근현대 역사, 경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 맥을 이어온 한식당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

이밖에도 이 책에는 대한민국 근현대 문학과 음악의 산실역할을 했던 다수의 한식당도 수록되어 있다. 대중가요의 대명사 '굳세어라 금순아'를 탄생시킨 대구 '강산면옥', 소설가 이청준의 '마량이경(馬良二景)'시에 등장하는 전남 강진 '완도횟집' 등이 그것으로, 한식당과 어우러진 문학과 음악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

〈오래된 한식당〉은 7월 20일 시판될 예정이며, 한식재단의 한식세계화사이트(www.hansik.org)에서 전자책으로 제공된다. 관련 정보를 간편하게 활용하도록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G 글·박경아 기자

한식재단 www.hansik.org ☎02-6300-2050

지역별 가장 오래된 한식당

지역 소재지	식당 이름	개업년도	주요 메뉴
서울 종로	이문설농탕	1904	설렁탕
부산 남구	내호냉면	1919	함흥냉면
인천 중구	평양옥	1945	해장국
대구 중구	국일따로국밥	1946	따로국밥
대전 유성	할머니묵집	1946	묵밥
울산 남구	함양집	1924	비빔밥
경기 안성	안일옥	1920	설렁탕
강원 속초	다신식당	1953	가리국밥
충북 보은	경희식당	1950	한정식
충남 논산	황산옥	1931	생복찜
전북 전주	삼백집	1945	콩나물국밥
전남 나주	하얀집	1910	곰탕수육
경북 경주	전통경주할매집	1944	쌈밥정식
경남 진주	천황식당	1927	진주비빔밥

가족이 함께할 '숙박관광'에 눈돌리자

프랑스의 국내관광 활성화는 6만개의 저렴한 숙박시설 '지트' 덕분

세계 경제가 침체를 겪게 되자 선진국에서 국내관광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세계관광기구에서도 지난해부터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와 국제관광의 비율은 평균 85퍼센트 대 15퍼센트 정도이기 때문에 국내관광에 신경 쓰는 일은 당연하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대통령이 국내관광을 독려하는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하는 등 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국내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데 문화체육관광부 외 여러 정부 부처가 힘을 합치고 있다. '2012 하하호호(夏夏好好) 캠페인'에 행안부의 정보화마을, 농식품부의 농어촌체험마을, 국토부의 갯벌생태여행, 환경부의 국립공원 생태관광 프로그램, 산림청의 숲길 체험 프로그램 등이 참여하고 있다. 몇몇 대도시에 인구와 물자가 집중돼 있어 관광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국내관광은 농어촌 주민의 새로운 수입원

국내관광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는 뚜렷하다. 우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휴가철에는 주로 대도시 주민들이 지방을 방문하게 된다. 그러면서 농어촌 주민에게 새로운 수입원이 마련된다. 농사를 짓는 땅에 도시 어린이들을 불러 체험하게 하면서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 관광에 필요한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는 것은 물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국내관광은 대도시 집중을 막고 지방분산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도시로 집중되는 이동경로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면서 지방에서는 이전보다 더 활발한 거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자연스럽게 외국인 관광객의 시선도 지방으로 돌릴 수 있다.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의 83퍼센트가 서울을 거점으로 하거나 서울에만 머문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관광을 더 많이 떠나면 그만큼 관광 여건이 좋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도 분산될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그 효과는 적지 않다.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국내관광만큼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 1980년대부터 국내관광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한 영국의 경우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을 떠난 사람 중 67퍼센트가 앞으로 국내여행을 더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여행을 다니며 몰랐던 조국의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적 계층이 함께 즐겨 문화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국내관광의 장점을 찾을 수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노인층, 장애인 등이 어우러져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국내관광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안들이 국내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국내관광의 주 수요자는 어린이가 있는 가족여행객이다. 여행경험은 가족의 화합을 이루고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가족여행에서는 눈으로만 보는 관광보다 문화 체험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학생들에게 여행과 래프팅 등 레저 활동에 대한 조기교육을 펼치면 국내관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에게 여행·레저 조기교육도 필요

캠핑여행이 요즘 주목받는 이유가 캠핑하면서 가족의 단결심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방학은 캠핑여행의 최적기라 많은 가족이 캠핑장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가족여행을 활성화시키려면 체험 중심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세계 1위의 관광대국이다. 그런데 전체 관광객의 85퍼센트가 자국민일 만큼 국내관광이 활성화된 곳이다. 그 원동력은 지트(Gite)라 불리는 숙박시설에 있다. 6만개에 이르는 저렴한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어 프랑스인들은 언제든 저렴한 비용에 가벼운 마음으로 훌쩍 떠날 수 있다. 거기다 걷기 코스가 잘 갖춰져 있고 음식 문화도 발달해 있어 얼마든지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대전 유성구 송정동 농촌체험마을인 선창마을에서 어린이들이 포도밭 체험을 하고있다. 휴가철에 대도시 사람들이 농어촌을 찾아 체험관광 등을 한다면 농어촌 주민에겐 새로운 수입원이 마련돼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 제주 올레길이 걷기 관광을 활성화했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관광객들이 길만 걸을 뿐 현지에서 돈을 쓰지 않고 떠난다는 점에서다. 이런 아쉬움을 보완하려면 다양한 숙박시설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국내여행을 촉진하는 단기 전략으로 정부와 기업이 앞장서 '하루 더 여행하기' 캠페인을 펼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회사에서 지방의 음식 문화나 아름다운 경치를 소개하는 공모전을 개최하면 회사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다. 사무실이나 공공시설에 지역별로 주요 관광지 포스터를 부착해 노출효과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지역을 알리는 데 힘이 되고 여행을 촉발시킬 수 있다. 서울역 지하철 역사 안에 지역홍보 안내판을 많이 설치해 오가는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자극받게 하는 이치와 같다.

장기적으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여행과 레저 활동에 대한 조기교육을 펼쳐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교환학생 홈스테이'를 한다면, 다른 지역을 이해하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에 방문한 지역에 호감을 갖고 여행을 할 가능성이 크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배낭여행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우리 머릿속에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배낭여행은 당연하게 해외여행을 의미하는 것이 됐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펼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캠페인' 등에 맞춰 국내 배낭여행을 장려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족여행객 끌어들일 체험 상품 많아져야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내여행 목적 중 숙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1위가 휴식, 2위가 경치 구경, 3위가 식도락이고, 숙박 관광은 4위에 불과하다. 여행 총량을 늘리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당일치기 여행보다는 숙박 여행이 더 효과적이다. 숙박 관광을 이끌어내려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축제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 활동 등을 늘리는 것도 좋다.

요즘 정책적으로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체력을 증진시키려 중학생들에게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의무화한다고 한다. 같은 논리로 학생들이 국내여행을 떠나 캠핑, 낚시, 승마, 요트, 카누, 래프팅 등 레저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젊은이들이 좋아할 이런 여가 활동을 늘리는 데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글·오익근
(계명대 호텔관광학과 교수·한국관광학회장)

7월 8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다. 대관료 5만9천원에 국내 최초로 도서관에서 결혼식을 올린 정오준, 홍성숙 부부가 주인공이다. 최근 들어 국립중앙도서관처럼 시설을 저렴한 비용에 결혼식장으로 개방하는 공공기관이 늘고 있다.

강남 한복판 국립도서관에서 웨딩마치!

국제회의장을 결혼식장으로 개방… 공공기관에서 알뜰결혼 줄이어

평균 1천만원이 훌쩍 넘는 과도한 결혼식 비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요즘, 공공기관이 앞장서 공간을 개방하면서 저렴한 비용에 결혼식을 치를 수 있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예전부터 시민에게 시설을 무료 개방해온 서울 성북구청, 인재개발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서울시 신청사 등이 '공공기관 결혼식장'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7월 8일에는 국내 최초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결혼식을 치른 신혼부부가 탄생하기도 했다.

누나를 따라 도서관을 즐겨 찾던 소년이 자라 도서관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7월 8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정오준(49)씨는 2백명의 하객 앞에서 홍성숙(49)씨와 평생 가약을 맺었다.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은 이들 커플이 처음이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특별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다"는 정오준, 홍성숙 부부가 도서관에서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얼마 전 국립중앙도서관이 국제회의장을 시민을 위한 결혼식장으로 개방했기 때문이다.

하객 2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회의장은 주례 단상, 신부대기실, 폐백실은 물론 조명과 음향 시설을 정비해 결혼식에 맞게 꾸며졌다.

대관비 5만9천원… 피로연은 구내식당서

이날 결혼식 주례는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맡았다. 특별한 결혼식에 아낌없는 축하를 건넨 최광식 장관은 부부에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등 책을 선물해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신랑 정오준씨는 "늘 특별하고 익숙한 공간이었던 도서관에서 결혼식을 올려 기쁘다"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결혼 후에도 매월 조금씩 돈을 모아 기부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서관 결혼식이 더욱 돋보이는 부분은 결혼식에 드는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다. 6백40제곱미터에 달하는 결혼식장을 빌리는 데 드는 돈은 5만9천원, 하객에 대접할 식사도 도서관 구내식당에서 해결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애초에 회의장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한 것도 비용 때문에 결혼식을 치르기 어려운 신혼부부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도서관 개방 소식이 들리자마자 결혼식을 예약한 커플은 20쌍에 이른다. 도서관 총무과 금상훈 주무관은 "비용 때문에 결혼식을 하지 못할 뻔했던 장애인 커플은 물론, 알뜰하게 결혼식을 치르고 싶어하는 젊은 예비 신혼부부도 찾아왔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취약계층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높은 결혼식 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시민도 많이 찾는다"는 것이다.

청와대 사랑채 등 공공기관 시민 개방 '활짝'

한 결혼정보회사가 조사한 2012년 현재 평균 결혼식 비용은 1천7백22만원이다. 하객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 비용이나 과다한 무대, 실내장식 비용 등이 사회적 낭비로 지적되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이 알뜰한 결혼식을 치르게 돕겠다며 앞장서고 있다. 공공기관 결혼식을 도와온 그린웨딩포럼에 따르면 공간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는 곳은 서울 시내에만 10곳에 달한다. 서울 서초구 인재개발원을 비롯해 성북구청, 국립중앙박물관, 도로교통공단 등 장소도 다양하다.

대부분 공공기관은 시민에게 무료 혹은 최소 비용만 부담하게 한다. 인재개발원은 대관료가 무료다. 성북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식사 비용만 부담하면 결혼식을 치를 수 있다. 특히 인재개발원에서는 일반 결혼식뿐 아니라 전통혼례도 치를 수 있어 인기가 좋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다문화 커플이 전통혼례를 치를 수 있게 지원한다. 최근에는 한국소비자원, 한국관광공사 등도 시설을 개방해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결혼식장을 찾는 사람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커플도 있지만 제 힘으로 결혼식을 치르려는 자립적인 커플도 많다. 1년 연애 끝에 9월 결혼하는 최하양(33), 이하용(34) 커플은 얼마 전 개방된 청와대 사랑채에서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다. 둘 다 일찍 아버지를 여읜 만큼 알뜰하게 결혼식을 치르고 돈을 모아 미래를 위해 투자할 생각이다. 최하양씨는 "결혼식은 앞으로 '잘 살겠다'고 하객들 앞에 다짐하는 자리이자 우리 두 사람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라며 "화려하기만 한 결혼식은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광렬 그린웨딩포럼 대표는 "공공기관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의미도 있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고 밝혔다. 10여 년 전, 구민회관이 시민에게 결혼식장으로 개방됐을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일반 예식장과 다름없는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광렬 대표는 "이제 공공기관 결혼식장은 저렴하기만 한 곳이 아니라 추억에 남는 인상적인 장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중앙도서관 금상훈 주무관 역시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을 치르며 예식장에서 불필요한 장식에 돈을 쓰느니 평소 데이트를 즐기던 도서관에서 하고 싶다고 찾아온 커플도 있다"고 말했다.

정오준, 홍성숙 부부의 알뜰 결혼식에는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주례를 맡았다.

울산·익산 등 지방 공공기관도 적극 참여

지방 공공기관에서도 결혼식을 치를 수 있다. 울산시 중구청에서 결혼식을 올리려면 올해 연말이 지나야 한다. 호텔급 시설을 갖추고 지난 3월 21일 처음 시민에게 개방된 중구청 '컨벤션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은 1백10만원, 비슷한 시설의 일반 예식장에서는 5백만~1천만원 드는 데 비해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시설도 좋다 보니 젊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줄을 지어 찾아와 결혼을 준비한다. 전북 익산의 중앙공원이나 부산의 사상구청 등에서도 일반 예식장과 같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공공기관이 알뜰한 결혼식 문화를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7월 2일 행정안전부는 산하기관인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수원 지방행정연수원을 주말마다 결혼식장으로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2청사 야외 마당을 개방했던 경기도는 8월부터 도청 내 회의실 등도 결혼식장으로 활용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AT 센터 내 예식장을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로 개방하겠다며 "허례허식 없고 알뜰한 결혼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김효정 기자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7월 13일 의정부에서 열린 '찾아가는 필통톡' 토크 콘서트에서 '미래 인재와 교육'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부만 잘해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찾아가는 필통톡'… 의정부서 첫 지역 토크 콘서트

지난 2월부터 다양한 교육현안을 주제로 현장과의 소통을 진행해온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번에는 '찾아가는 필통(必通)톡'으로 전국 10개 중소도시 순회에 나선다. 그 첫번째로 지난 7월 13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이 지역 학생·학부모 3백여 명과 '미래 인재와 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토크 콘서트인 '찾아가는 필통톡' 의정부 편이 지난 7월 13일 의정부 신흥대학에서 개그맨 서경석씨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의 주제는 '미래 인재와 교육'이었으며, 이 장관 외에 연세대 입학사정관으로 있는 박정선 교수, 효자고에서 진로상담을 맡고 있는 김진영 교사, 입학사정관제로 포스텍에 진학한 지은경 학생이 패널로 출연했다.

이날 콘서트는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고교생 딸과 부모 이야기를 담은 상황극으로 시작됐다. 서경석씨는 "교과부에서 필통톡을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 질문을 받아봤는데,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진로와 관련된 고민들이었다"며 주제를 '미래 인재와 교육'으로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주호 장관은 '미래 인재의 기준'과 '교육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미래 인재와 교육' 주제로 토론 가져

"공부만 잘하는 공부벌레가 성공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얼마 전 〈퍼스트 무버〉라는 책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퍼스트 무버'란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선도자의 역할뿐 아니라 일상의 혁신을 먼저 가져오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잡스를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잡스가 주변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창의력을 기반으로 전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원동력을 만들어냈죠. 책에 보면 '변화를 보고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입니다."

미래형 인재 '퍼스트 무버'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창의인성교육'과 '진로교육'이라는 얘기였다. 이 장관에 따르면 창의성이란 새롭고 가치있는 것을 산출해내는 능력으로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력, 사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통해 발현된다. 정부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9년부터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축소하고 주입식 암기 위주의 단순 지식 학습량을 줄였고,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창의인성교육'과 '진로교육'은 취업난 해소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이주호 장관은 "최근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률은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은 인력난이 계속돼 학력과 일자리 간의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좀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보력 약한 중소도시 배려해 맞춤형 진행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일은 어른들도 쉽지 않다.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뭘까. 김진영 효자고 진로상담교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아이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같은 학교교육의 변화는 입시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주호 장관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리더십, 봉사정신 등 다양한 능력을 고루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초점을 맞춘 입시제도로 입학사정관제를 꼽았다. 시험점수로 평가되지 않는 창의성, 재능,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선진화된 대입제도가 입학사정관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입학사정관은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할까. 박정선 연세대 입학사정관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해왔는가, 그리고 열정을 갖고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입학사정관제로 합격하길 바란다면 일단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수준의 학력을 갖추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열정을 갖고 스스로를 계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6일 한국체대에서 열린 필통톡에 모인 학부모들.

'찾아가는 필통톡' 중소도시 지역 일정

일시	지역	주제
7월 24일(화) 15:00~17:30	충주	일반주제(진로진학, 창의인성교육, 입학사정관제)
8월 24일(금) 15:00~17:30	군산	특화주제(진로교육, 역량쌓기, 취업준비, 후진학)
8월 28일(화) 15:00~17:30	순천	일반주제(진로진학, 창의인성교육, 입학사정관제)
8월 31일(금) 15:00~17:30	구미	특화주제(진로교육, 역량쌓기, 취업준비, 후진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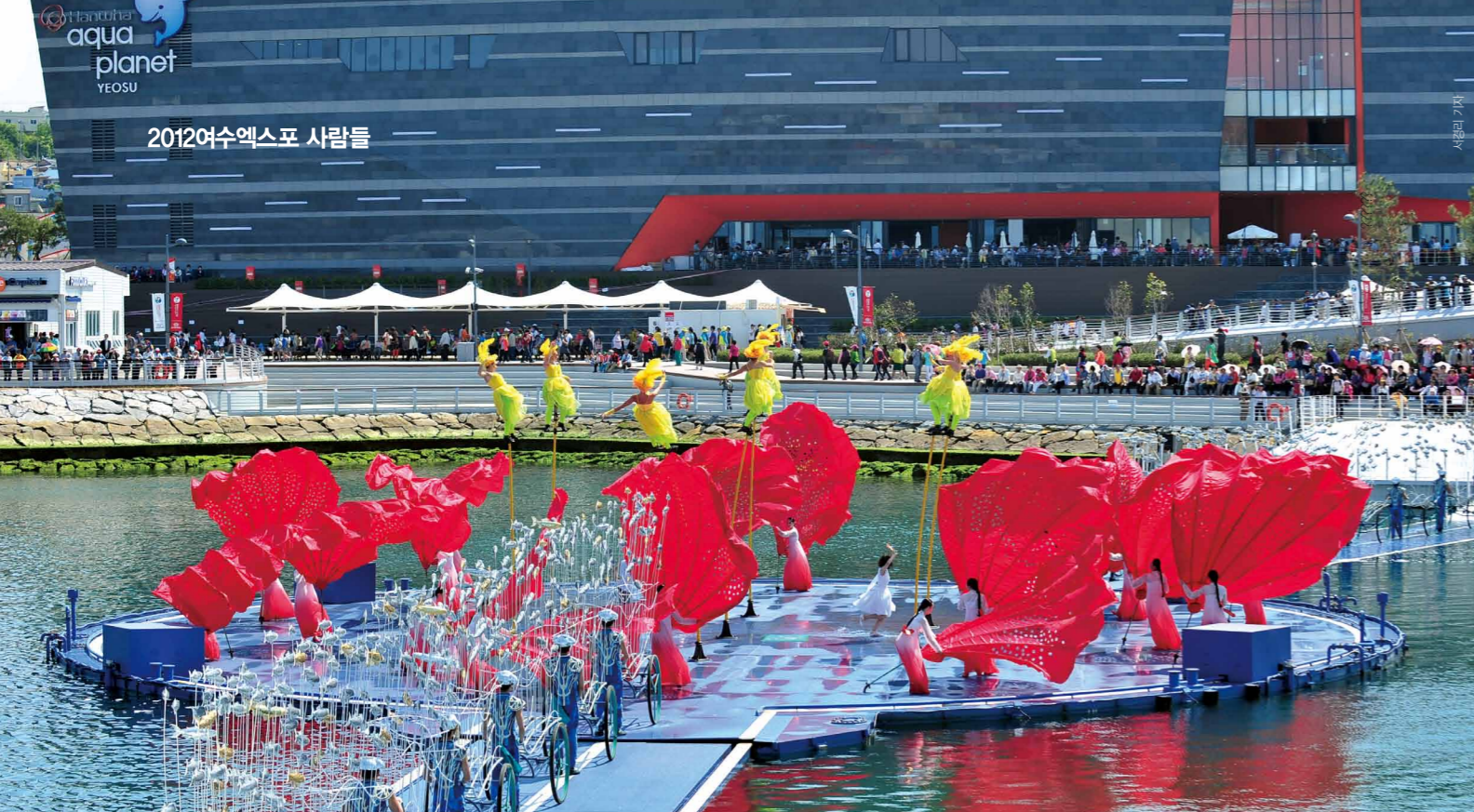
※진주, 아산, 안산 등은 9월 중에 실시, 10월 실시 지역 및 일정은 미정

입학사정관제로 올해 포스텍에 진학한 지은경 양은 합격 비결을 묻는 질문에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학교 진도를 따라갔고, 사교육 대신 학교에서 운영하는 심화반, 방과후 학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며 "교내 과학 행사, 대학 캠프 등이 진로 선택과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되었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런 점들을 솔직하게 적었다"고 답했다.

이날 콘서트는 질의응답까지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중학생인 두 자녀와 함께 참석한 40대 한 주부는 "아이들 진학 문제로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어느 정도 해소된 기분"이라며 "이런 교육 콘서트가 앞으로도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를 시작으로 전국 10개 중소도시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필통톡'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약한 중소도시를 배려해달라는 여론에 의해 추진됐다. 중2~고2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도시별 교육여건을 감안해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콘서트 내용은 교과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며, 행사 후 유투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G 글·서철인 기자

교육과학기술부 www.필통톡.kr

해상쇼는 매일 오후 2시부터 70분 동안 펼쳐지며, 11개 국가에서 온 다양한 색깔의 공연단이 참가하고 있다.

여수엑스포 해상쇼를 이끌고 있는 주요 스태프. 왼쪽부터 이우석(조연출), 지은옥(행정), 김성훈(운영감독), 정영재(연출감독), 안병달(연출감독)씨.

오디션 선발된 11개국 공연단이 팀 이룬 '꽃피는 바다'

한국적 정서 담은 '다국적 해상쇼' 펼친다

매일 오후 2시, 여수엑스포에서는 해상쇼 '꽃피는 바다'가 펼쳐진다. 바다를 무대로 거리 공연, 수상쇼, 분수쇼, 서커스 등 11개국 공연단이 펼치는 다채로운 공연은 '빅오쇼'와 함께 여수엑스포의 중요한 볼거리로 자리 잡았다. '한국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쇼'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상쇼를 기획하고 그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무대 뒤 사람들'을 만났다.

공연 시간이 30분이나 남았지만 이미 스탠드형 객석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해상쇼의 인기를 실감한 순간이었다. 그 시각, 공연팀과 연출진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공연팀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공연을 진두지휘하는 연출진은 무대가 한눈에 들어오는 '콘솔 박스'에서 최종 점검을 마쳤다.

해상쇼는 한국의 마당놀이를 기본으로 로드 퍼포먼스, 아트 퍼포먼스, 서커스, 워터 제트·플라이 보드 같은 수상 스턴트, 분수쇼 등이 결합한 종합예술 공연이다. 여수의 전통 설화를 모티브로 스토리를 만들어 '연안과 바다의 보전, 조화'라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정신을 표현한 주제공연이기도 하다. 거리에서 진행되는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빅오의 바다 공간 전체와 해상 특수구조물을 활용하는 메인 공연 및 커튼콜까지 약 70분간 이어진다.

마침내 공연 시간인 오후 2시가 되자 정영재 연출감독이 시작 사인을 내보냈다. 이제부터 1시간 남짓, 관객들은 더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공연을 관람하지만 무대 뒤에 있는 연출·운영팀은 마치 전장에 나선 심정으로 가슴을 졸인다. 공연 도중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 감독은 "수상 스턴트 같은 위험한 연기가 있어 안전 문제가 가장 신경이 쓰이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 가끔은 데크 앞까지 물이 차오르기도 해 공연 내내 예의주시한다"며 "하지만 전혀 예기치 않은 재미있는 변수들도 많다"고 말했다.

관객 참여한 변수 많아 스릴 더해

'재미있는 변수들'의 주인공은 바로 관객들이다. 끼와 재주 많은 관객이 공연단 손에 이끌려 무대 앞으로 나갈 때다. 연출팀은 이때 객석의 반응을 살펴 예정된 시간을 좀더 늘리고, 다음 공연팀에게 '잠시 대기'를 지시하는 등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 공연팀의 동선과 시간은 사전에 정확히 계산된 것이라 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이다. 인터뷰가 있던 날도 몇몇 관객이 무대에서 큰 웃음을 선물했다. 덕분에 운영요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지만 이들은 "공연이 더 즐거워진다면 이 정도 수고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며 웃었다.

해상쇼를 이끌고 있는 이들은 모두 '제일기획 컨소시엄' 소속이다. 제일기획을 중심으로 각 분야 공연 전문가, 협력사들이 손잡고 만든 조직으로 이들은 그동안 2002 한·일 월드컵 개막식, APEC 정상회의, G20 서울 정상회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폐막식 등 국내에서 열린 굵직한 국제 행사들을 두루 기획하고 연출했다. 특히 이번 여수엑스포에서는 2002 한·일 월드컵 개막식에서 손발을 맞추었던 인력들이 대거 포함돼 탄탄한 팀워크를 자랑한다.

매일 오후 2시 공연마다 1백30여 명 출연

좌장 격인 윤정섭 총감독은 1988년 서울올림픽, 1993년 대전엑스포 개막식 연출과 2002년 한·일 월드컵 전야제 미술감독을 맡았던 인물. 조환준 총연출은 조명과 특수효과를 쓰기 어려운 야외, 한낮 공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당놀이를 토대로 한 한국적인 정서를 세계적인 콘텐츠에 담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아 해상쇼의 뼈대를 만들었다.

해상무대를 맡아 현장에서 공연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영재 연출감독은 한·일 월드컵 개막식 외에 인천세계도시축전, 경주문화엑스포, 세계도시문화축전 등을 연출했다. 그는 "조명도 없고, 탁 트인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공연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며 "2~3분마다 새로운 볼거리를 터뜨려 주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3분의 법칙'을 활용했다"고 한다.

이밖에 손용훈 감독이 거리 공연을, 안병달 감독은 수상 쇼를 담당한다. 운영은 김성훈·홍진수 감독이 맡고 있다. 이들 모두 국내에서 열린 다양한 국제 행사들에 참여했던 베테랑들이다.

공연팀의 면면도 화려하다. 이 초대형 공연에 투입된 연기자는 모두 1백53명, 한 번 공연 때마다 1백30명 정도가 무대에 선다. 규모도 크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호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체코, 일본, 프랑스 등 모두 11개국에서 온 '다국적' 공연단이다. 실력이 검증된 연기자를 데려오기 위해 연출팀이 직접 현지로 날아가 오디션을 실시했다고 한다.

이 중 관객들에게 가장 큰 호응이 좋은 팀은 수상 스턴트를 선보이는 '모터제트'팀. 다른 공연단이 전문 연기자들로 구성된 것과 달리 이들은 현역 프로선수들이다. 한국, 일본, 미국 국적의 선수들로 이들 역시 오디션을 통해 선발했다.

현역 프로선수들의 '모터제트'팀 최고 인기

모터제트팀의 계류장은 오동도에 있다. 연습도, 공연을 위한 최종 준비도 모두 이곳에서 한다. 공연이 시작되기 15분 전쯤 주제관 뒤쪽에 마련된 간이 계류장으로 와 잠시 머물다 공연 때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가 하면 초대형 마리오네트 '연안이'는 아침에 '공연 창고'에서 나와 오전 내내 스카이타워 앞에 머물며 일종의 '포토 존' 역할을 한다. 그러다 공연이 시작되면 공연단의 힘에 이끌려 천천히 해상 무대로 이동한다. 공연팀마다 출발지가 다르고, 연습 장소도 달라 전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날 공연을 준비하기 위한 아침 조회가 있지만 분야별로 나뉘어 진행된다고 한다.

연출, 공연과 함께 해상쇼를 완성시키는 또하나의 주역은 바로 운영팀원들이다. 정 감독은 "겉으로 드러나는 연출이나 공연팀과 달리 운영팀원들은 무대 밖에서 가장 많은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마침 뜨거운 햇볕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며 공연이 끝난 무대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최고의 공연을 만난다. G

글 · 최선희 객원기자

해경에 입문한 지 26년째인 김문홍 총경은 최근 목포해양경찰청에서 인천에 있는 본청 수색구조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0년 '크리스마스의 기적' 주인공 김문홍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

함장경험 살린 리더십 강의로 재능 기부

김문홍 총경은 서해를 지키던 함장 시절, '(불법 어로) 중국 어선 킬러'로 이름을 날렸다. 2010년 12월에는 전남 신안군 만재도 해상에서 침몰 중인 화물선 승선원 15명 전원을 10분 만에 극적으로 구조해 국제해사기구(IMO)로부터 '바다의 의인(義人)상'을 받았다. 총경으로 승진해 이제 더 이상 배를 탈 수 없지만 지금도 바다를 보면 가슴이 설렌다는 그는 현장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재능 기부 형태로 강의를 한다.

김문홍(54) 해경 총경이 강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 국방대가 주관한 '군인·공무원 리더십 우수 실천 사례 발표대회'에 나가 최우수상을 받은 이후부터다. 그동안 포스코 교육센터에서 신임 팀리더 특강을 시작으로 목포해양대, 이랜드 복지재단 등에서 특강을 했다. 그가 강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현장의 리더십'과 '우리 바다의 중요성, 그리고 그 바다를 지키는 해경의 역할'이다.

"우리 바다는 3면이 다 특색이 있습니다. 특히 천연 자원의 보고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해요. 중국, 일본이 우리 영토를 자꾸 넘보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지요. 동해의 독도는 일본이, 남해의 이어도는 중국이 시비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서해에서는 어족 자원을 노리는 중국의 불법 어로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그만큼 중요한 우리 땅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최전선에 바로 해경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요."

구조된 승객 15명과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

재능 기부를 통한 강의라 강의료는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바쁜 시간을 쪼개 강의에 나서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다. 일반 경찰이나 소방구조대와 달리 일반인들이 해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안타까움도 그가 강의를 시작하게 된 동기다.

해경에 입문한 지 26년, 김문홍 총경은 그 중 절반을 바다에서 보냈다. 그동안 가장 작은 경비정에서부터 가장 큰 경비정이자 국내에 단 한 척뿐인 5천톤급 '삼봉호(독도경비정)'까지 두루 거쳤다.

함장 시절 그는 승조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훈련으로 유명했다. 새로운 배의 함장을 맡으면 3개월간 밤낮없이 훈련을 시켰다. 해상에서의 인명 구조나 중국 어선의 나포, 다른 배의 화재 발생 시 혹은 침몰 시 구조 요령 등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익히도록 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관리 능력 강화는 승조원 자신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일이어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바다에서는 어떤 비상사태가 생길지 모르니 잘 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 배짱이 두둑해집니다. 어떤 위험이라도 거뜬히 극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지요.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운명공동체'가 된 동료들과 함께 혹독한 훈련을 견디다 보면 눈빛만 봐도 서로의 의중을 알아차릴 정도로 팀워크도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 되고, 훈련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게 함장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목포에서 주민 1백50명을 상대로 리더십 강의를 하고 있는 김문홍 총경. 2010년 침몰한 화물선에 타고 있던 승조원 15명을 극적으로 구출한 얘기를 할 때 면 어김없이 박수가 터져 나온다고 한다.

"사회의 리더십 부재는 현장 중시 않는 탓"

그는 팀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의 지도력은 전적으로 '현장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그가 강의 때마다 '현장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이유다. 그는 현장형 리더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강덕 해양경찰청장'을 들었다.

"제가 서해지방해경에 근무할 때였는데, 해양경찰청장님께서 5박 6일간 함정에서 머무르며 현장 업무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승조원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 상황을 살피는 청장님의 모습이 당시 일선에서 일하는 해경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현장의 리더십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리더십 부재는 현장을 중시하지 않고,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강의는 오랜 함장 생활을 통해 체득한 생생한 경험담 위주여서 더 맛깔스럽고, 더 감동적이다. 특히 2010년 12월, 전남 신안군 만재도 해상에서 침몰한 화물선에 타고 있던 15명의 승선원 전원을 구한 일을 이야기할 때면 청중들 사이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온다.

당시 그는 배를 삼킬 듯 달려드는 5미터 높이의 파도 아래 보트를 내리고, 단 10분 만에 구조작업을 마쳤다. 한겨울이라 조금만 늦었어도 저체온증에 빠져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라 그의 기민한 대응력과 잘 훈련된 승조원들은 두고두고 화제가 되었다.

그는 우리 바다에서 불법 어로를 자행하는 중국 어선들에 대해서도 매우 강경하게 대응했다. 2006년 한 해에만 1백38척을 나포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2010년에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남 조도가 고향인 그는 우리 바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그래서 바다를 지키는 일도 천직으로 생각한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어머니 밑에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군 제대 후 이런저런 일들을 닥치는 대로 했지만 잘 풀리지 않아 '내가 있을 곳은 역시 바다'라는 생각으로 해양경찰이 되었다는 김문홍 총경.

"국민에 감동과 신뢰 주는 해경 만들기 일조"

해경 시험에 합격한 후 하루 한 갑씩 피우던 담배를 단번에 끊었고, 승진시험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아 12년 만에 경감을 달았다. 경위로 승진한 뒤에는 뒤늦게 대학 공부를 시작해 대학원까지 마쳤다. 최근에는 박사 과정에 등록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삶을 들려주며, "나의 사례가 다른 해경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참으로 내세울 게 없던 제가 해경에 들어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요. 얼마 전에는 본청 수색구조과로 발령받아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갈고 닦은 경험을 십분 발휘해 해경의 수색 구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를 주는 강한 해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큰 보람은 없을 겁니다." G

글 · 최선희 객원기자

한글 디자인 상품을 만드는 김소예 디자이너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 새겨진 셔츠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 디자이너는 한글 디자인을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려 "대중문화에 치우친 한류가 보편적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글은 그 자체로 훌륭한 디자인 상품"

김소예 디자이너, 한글 새긴 넥타이·머플러 등 상품화 노력 결실

20년 전부터 '한글 디자인' 상품을 만들어온 김소예 디자이너는 한류의 숨은 공신이다. 한글을 새긴 넥타이, 머플러 등을 만들어 한글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왔다. 드라마, K팝 등으로 뜨거워진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도록 다양한 한글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김 디자이너는 "한글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디자인 상품"이라며 끝없는 한글 사랑을 표현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장맛비가 내리는 여름 오후에 나지막이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를 읊는 김소예 디자이너(66)의 입에 미소가 걸렸다.

김소예 디자이너는 20년 가까이 한글 디자인 작품을 만들어 왔다. 김 디자이너의 작업실에는 한글 '복'자를 무늬로 만든 넥타이와 스카프,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새긴 티셔츠 등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작품 하나하나를 짚어 설명하던 김 디자이너는 "한글은 우리 문화의 모든 것을 담는 상징"이라며 '한글 디자인'을 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오랜 구상 끝에 2003년 처음 제품 선보여

원래 김 디자이너는 대학에서 연극 연출을 전공한 연극인이었다. 배우와 관객이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다 시 낭송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시야말로 모든 예술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1988년 시낭송가 자격증을 받을 만큼 우리나라 시와 한글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그러면서 그는 "시와 한글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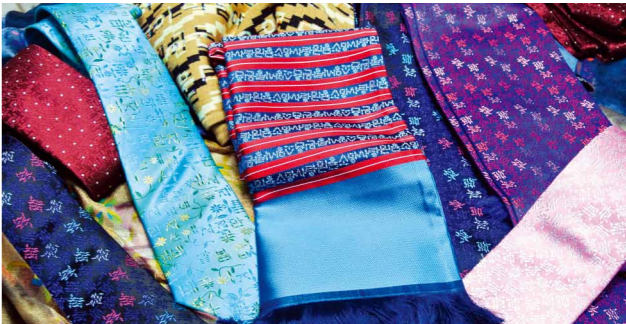
구체적인 방법이 떠오른 건 1993년 대전 엑스포를 찾은 후였다. 김 디자이너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는데 하나같이 영어로 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며 "영어 대신 한글을 새길 순 없을까 생각했다"고 계기를 설명했다. 처음 만든 작품은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그린 셔츠였다. 시험삼아 만들어본 셔츠에 주변의 호평이 쏟아졌다. 그는 "처음에는 좋아하는 글자로 여기저기 디자인하는 게 마냥 좋았다"고 한다. 김소예 디자이너는 그 이후로 10년 넘게 한글로 각종 디자인을 구상했다.

혼자 간직하던 한글 사랑을 상품으로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건 2003년의 일이었다. 중소 인쇄기업을 운영하는 남편 권희명 '내사랑코리아' 회장의 강력한 권유 덕분이었다. 젊은 시절 라디오 방송 성우로 활약하기도 했던 권 회장은 "앞으로 유럽이나 미국 문화 못지않게 우리 문화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날이 올 것"이라며 김소예 디자이너를 설득했다.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 전문도 새겨넣어

많은 시행착오 끝에 한글 '복'자를 무늬로 만든 넥타이와 머플러가 제작됐다. 김 디자이너는 "당시만 해도 드라마를 통해 막 한류가 시작되던 시기라 상품 가치가 있을지 솔직히 걱정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2004년 서울 강서구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의 일원으로 참석해 영국, 벨기에, 스웨덴 등의 기업과 25만달러 계약을 맺을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김 디자이너는 '복' 디자인에 대해 "영어로 luck, fortune, bless 여러 단어가 우리 말 '복' 하나로 표현된다"며 "좋은 뜻을 한 글자에 담아 디자인했다고 하니 매우 흥미로워했다"고 설명했다. 유럽 시장에서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일본 오타루시에서도 김 디자이너의 작품을 갖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외국인 친구에게 인상 깊은 선물을 해주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문도 이어졌다.

김 디자이너의 손끝에서 더 많은 작품이 쏟아져 나왔다. 김 디자이너는 "처음에는 한글이 새겨진 듯 아닌 듯 변형시켜 만들다가 점차 뜻을 알아볼 수 있게 글을 새겨넣었다"고 말했다. '산유화' 전문을 새긴 넥타이를 만들었을 때는 '복' 디자인만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산유화' 시를 가만히 읽기만 해도 아름다운 산수가 그려지는 게 한글 디자인의 장점"이라며 "좋아하는 시를 디자인 작품으로 변형시키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수놓은 머플러나 김춘수 시인의 '꽃' 전문이 그려진 셔츠도 만들었다.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가 새겨진 넥타이 등 김소예 디자이너의 작품은 한글의 아름다움을 한껏 드러낸 것들이다.

한글의 우수성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 한글 디자인의 필요성을 알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김 디자이너는 "영어를 잘하는 게 우리말 잘하는 것보다 우대받는 환경에서 한글 디자인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되묻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더 다양한 디자인 작품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아쉬웠다. 김 디자이너의 한글 사랑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물심양면 지원해온 권희명 회장도 "한글의 우수성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만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글은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디자인 작품'이라는 김 디자이너의 한글 사랑은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힘을 얻기 시작했다. 드라마, K팝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우리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늘어났다. 한글을 문화 상품으로 개발하자는 목소리도 커졌다. 김소예 디자이너는 "한글 디자인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며 "예전에는 기업 등에서 대량 주문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한글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화의 한 장면 담은 새 디자인 구상 중

김 디자이너가 요즘 구상 중인 디자인은 동화의 한 장면을 글자와 그림으로 담아내는 것이다. 한글 디자인 작품을 기념품으로 사가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보면서 "자라나는 전 세계 어린이들이 한글을 쉽게 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다. 또 "외국산 캐릭터를 더 많이 아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한글 디자인 상품을 통해 우리 문화를 더 잘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도 생겼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글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은 우리 시를 새긴 작품도 만들 예정이다. 의류뿐 아니라 다양한 한글 디자인 상품을 만들 계획도 세우고 있다. 김 디자이너는 "대중문화 분야에 치우친 한류가 보편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게 하고 싶다"고 목표를 밝혔다.

글과 사진·김효정 기자

클라우드란 무엇인가? 만화로 보는 IT 오디세이

글 · 김인성 / 그림 · 김빛내리

이제 세상의 모든 데이터가 인터넷에 저장되어 어디서나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볕 좋은 여름날의 속초해수욕장 풍경. 속초 최고의 해수욕장으로 맑은 바다와 고운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어 가족 단위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속초~고성 7번 국도

예쁜 포구와 호수로 이어진 길 따라 잠시 멈춰 책도 읽고 걸어도 본다

속초에서 고성까지 7번 국도와 해안도로를 누비며 즐긴 여행. 거대한 영랑호와 화진포 호수를 찾아서는 호젓한 분위기 속에 산책하고, 거진항과 대진항 등 동해안이 품은 아름다운 항구를 거닐며 여름날의 낭만을 즐겼다. 황태덕장 사이에 들어앉은 진부령미술관과 고성 자작도 해변에서 만난 김하인아트홀에서 감성 충전을 시도했다.

새로 생긴 경춘고속도로를 달려 인제를 지나 설악산 미시령을 넘으면 속초시내로, 진부령을 넘으면 고성 방면으로 이어진다. 속초로 바로 내달리려던 마음이 바뀐 것은 '진부령미술관'이라고 쓰인 작은 표지판을 발견하고 나서였다. 깊고 깊은 산중, 겨울이면 황태덕장으로 빼곡히 들어설 고갯길 정상에 미술관이라니. 혹시나 하고 삐죽 미술관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는데 1층 전시실부터 1960~70년대 영화작품 포스터와 배우 사진들이 잔뜩 눈길을 사로잡는다. 진부령미술관 관장의 이력 덕분에 걸린 사진들이다.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 〈꼬마신랑〉 〈마부〉 등 한국 근대영화사에 큰 획을 그은 작품을 제작한 전석진 선생이 바로 진부령미술관의 관장이다. 전 관장은 아르바이트 삼아 영화 시나리오 등사 일을 하다가 영화 마케팅 일을 시작했다. 영화 제작을 담당하면서는 15년 동안 46편의 영화를 기획하고 제작하며 한국 영화계의 큰 손으로 자리 잡았다.

"1963년 국도극장에서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개봉했을 때는 극장 앞에서부터 인현동길, 명보극장 앞까지 관객의 줄이 이어졌지. 〈꼬마신랑〉도 마찬가지였고. 배우 문희나 가수 나훈아를 발굴했고 이미자가 톱스타 반열에 오르도록 도왔다고, 내가."

하는 일마다 운이 따라 잘됐기에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다며 백발의 노신사는 호탕하게 웃는다.

해발 520미터 진부령 꼭대기에 있는 진부령미술관의 탄생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키를 타러 진부령을 넘던 전 관장의 눈에 폐건물이 된 고성군 간성읍 출장소가 눈에 띄었다. 건물이 서 있는 위치가 아깝다고 느껴 재활용하자고 고성군청 관계자들을 설득했다. 2009년 새로 건물을 지어 미술관을 열었다.

진부령 꼭대기엔 생뚱맞은 '진부령미술관'

미술관은 비록 작은 규모지만 정상급 작가들의 작품으로 늘 빛난다. 오는 7월 말까지 계속되는 〈더 로즈〉전은 뉴욕과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 심명보의 개인전이다. 심명보는 장미를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는 상징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생명체로 활용하고 있어 '장미화가'란 애칭이 붙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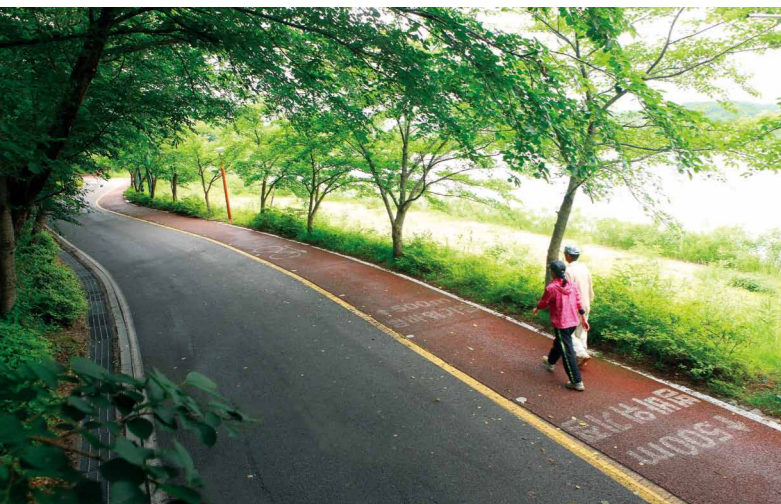
꽤 흐린 날씨였는데 섬은 희게 빛나고 있었다. '아야진'이라는 어여쁜 이름을 가진 해변에서 구불구불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다가 자작도 해변에서 만난 섬이었다. 인근 해변과 다르게 해무가 끼지 않아 푸른빛이 선명한 동해와 바다 위 작은 섬 백도가 어우러진 풍경이 여행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국화꽃 향기〉의 소설가 김하인과 부인인 도예가 정재남이 세운 '김하인아트홀'이 있는 곳이다. 김하인아트홀에서는 누구든지 백도의 바다를 바라보며 쉬면서 책을 읽고 흙을 만지며 옷감에 물을 들일 수 있다.

"여기는 아내가 나고 자란 곳이고, 아내를 만나 사랑을 꽃피우고, 내 남루했던 서울살이 시절을 위로할 수 있었던 곳이에요. 〈국화꽃 향기〉를 시작으로 소설가로 크게 도와준 곳이죠." 소설가 김하인이 고성의 자작도 해변에 문화공간을 연 지 5년이 지났다.

김하인아트홀 지하층과 1층에서는 도예체험과 염색체험을 할 수 있다. 도예가 정재남이 평생 촌부로 살아온 지역 부녀자들에게 흙 빚는 방법을 알려주는 공간이지만 일반인들도 체험해 볼 수 있다. 개인뿐 아니라 80명까지 단체 체험객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에는 카페도 마련돼 있다.

2층 도서관에서는 바다를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 있고, 3층에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최북단항 대진항.

김하인아트홀에서 도예체험 중인 지역주민들.

8킬로미터에 이르는 영랑호 둘레길. 범바위와 숲터널이 어우러져 걷는 맛이 쏠쏠하다.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마련돼 있다.

사랑에 대한 작가의 깊고 튼튼한 고찰 덕분에 강한 여운을 남기는 글을 읽고 공감했다는 독자가 많다. 백도 바다 위로 '감성소설'이라 할 만한 그의 작품이 있어 오늘도 잠 못 드는 밤을 보낼 이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이번 여행에서는 7번 국도만을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 가능한 바다와 가까운 해안도로를 굽이굽이 찾아다니며 '나만의 낭만가도'를 만들기 위해서다. 대포항에서 시작된 7번 국도는 속초시내를 관통한다. 근사한 송림에 둘러싸인 물 맑은 속초 해수욕장을 지나 동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청초호가 나온다. 속초 중앙시장과 속초시청을 지나면 동명항에 다다른다. 양식한 해산물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동명항은 속초의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맛 좋고 저렴한 횟집들이 몰려 있는 곳이다.

동명항 언저리 영금정과 등대 전망대에 이어지는 낭만가도는 영랑호까지 뻗어 간다. '영랑'이라는 이름의 화랑이 호수의 풍경에 반해 머물렀다는 영랑호는 둘레 8킬로미터, 넓이 36만평이 넘는 거대한 자연 호수다. 호숫가를 따라 자동차길이 나 있긴 하지만, 영랑호를 제대로 즐기려면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것이 좋다.

영랑호 둘레길은 일곱가지 테마로 꾸며져

7가지 테마로 나뉜 영랑호 둘레길 옆으로 햇볕 들지 않는 숲 터널과 신비로운 비경을 지닌 범바위, 이국적인 분위기 물씬 풍기는 별장들과 호수 위를 미끄러져 나아가는 카누들이 차례로 나타나 지루할 틈이 없다.

영랑호의 남동쪽에 있는 범바위에는 꼭 올라야 한다. 건너편에서 보면 웅크리고 앉은 호랑이의 형상을 닮아 범바위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범바위 위에 올라 영랑호를 내려다보면 제대로 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속초의 마지막 항구인 장사항을 지나 화려한 펜션과 호텔들이 즐비한 봉포항에 들어서면, 여기서부터는 고성군이다. 관동8경의 하나이며 동해 일출 최고 명소로 꼽히는 청간정과 해안절벽 위 선경(仙境)이라 불리는 천학정을 차례로 지나면 스쿠버다이버들이 모이는 문암리 해변, 백도 해변, 자작도 해변이 이어진다.

캠핑이 유행인 요즘 백도 해변은 인근 송지호오토캠핑장과 함께 찾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는 곳이다. 샤워시설, 식수대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깨끗하고 넓은 백사장이 있어 아이들이 놀기에도 좋다.

가리비 주산지인 오호항을 지나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면 물회로 유명한 가진항이 나타났다가 거진항을 만난다. 거진항은 고성에서 가장 크고 번화한 항구다. 명태잡이가 전성기를 맞았을 때, 동네 개들도 만원짜리 지폐를 입에 물고 다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번성했던 곳이다. 지금이야 동해에서 명태가 자취를 감춰 예전만큼 북적이지 않지만, 대신 서정적인 항구의 정취가 남아 있다.

해 질 무렵 거진 앞바다로 흘러내리는 붉은 노을을 가르며 집어등을 켠 오징어잡이 선단이 출격하는 모습은 감동적이다. 선한 눈빛의 바닷새들이 배 꽁무니를 쫓아 일제히 날아오르는 광경을 보노라면 중력을 잊고 날아오르고 싶은 마음마저 들게 하는 곳이 바로 거진항이다.

소나무 향 진한 화진포 산소길도 걷기 명소

거진항 북쪽으로 남한의 최북단 항구인 대진항이 있다. 거진항보다 규모는 작지만 활기찬 분위기다. 최전방에 있는 포구라지만 평화롭고 나른한 분위기가 여행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떠나기 아쉬운 마음을 포구 한쪽에 단단히 묶어 둔 채 다시 길을 나선다.

곧 화진포 호수에 닿는다. 이번 여행의 종착지다. 화진포 호수는 바다에서 밀려온 퇴적물에 의해 바다의 일부가 막혀 생겨난 호수다. 염분이 높아 한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아 철새들이 머물렀다 가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화진포 호수 북쪽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별장에서 시작해 동쪽 호수길을 따라 찻골마을까지 이어지는 3킬로미터의 산소길은 일부러 시간을 내 걸어볼 만하다. 이기붕 부통령의 별장과 김일성의 별장이었다던 화진포 성을 둘러볼 수도 있다.

산소길의 끝자락 찻골마을길로 들어서면 자동차 소음 없는 호젓한 시간이 시작된다. 소나무 숲이 뿜어 내는 은은한 나무 향과 나지막하게 우는 새소리, 호수의 수면을 스치고 불어오는 기분 좋은 바람과 간간이 물고기 참방이는 명랑한 소리에 기쁜 마음이다. 걸어야 할 길이 끝나는 게 아쉬울 정도로 말이다. G

글 · 고선영 (여행작가) / 사진 · 김형호 (사진작가)

속초시민의 부엌인 중앙시장. 일반 재래시장과 수산물 수산물시장, 젓갈골목, 건어물 골목이 있는 최대규모의 시장이다.

여행수첩

찾아가는 길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자동차로 움직일 때는 미시령 터널을 이용하면 속초까지 빠르게 닿을 수 있다. **진부령미술관(☎033-681-7667)**은 진부령 정상에, **김하인아트홀(☎033-636-5679)**은 고성군 문암리 자작도 해변에 있다. 서울 강남터미널이나 동서울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해서도 속초에 닿을 수 있다. 속초시내에서 출발해 7번 국도를 따라 통일안보공원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033-634-7034)**를 이용하면 속초와 고성 사이 주요 해변과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다.

먹을 곳 속초부터 고성까지 항구마다 맛난 음식이 가득하다. 뜨거운 여름에 어울리는 시원한 별미, 물회는 고성군 가진항에 가면 맛볼 수 있다. 유명한 단천식당은 최근 화재로 전소해 새로 건물을 짓고 있다. 맞은편 **다신식당(☎033-633-3871)**에서 명태회냉면과 다양한 이북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속초 중앙시장 닭전골목은 늘 닭강정 만드는 고소한 냄새로 가득하다. 속초 별미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닭강정은 **동해닭집(☎033-632-1291)**, **만석닭강정(☎033-632-4084)**이 유명하다. 1마리에 1만5천원 정도인데 어른 서넛이 먹을 정도로 푸짐하다.

잠잘 곳 속초와 고성에는 강원도의 전통적 휴양지답게 다양한 숙소가 많다. 규모가 큰 리조트나 콘도미니엄은 설악산 국립공원 주변에, 시설 쾌적한 특급호텔은 대포항 인근에 많다. 아담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펜션이나 부티크호텔은 고성 봉포해변에 몰려 있다. **히솝펜션(☎033-631-1993)**, **모닝하버펜션(☎033-633-6137)**, **해맞이하우스(☎033-631-2244)** 등이 인기 있는 곳이다.

문의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센터 ☎033-1330
속초 종합관광안내소 ☎033-639-2690
고성군 화진포관광안내소 ☎033-680-3677

차갑게 먹는 만두, 편수

편수는 개성의 향토음식으로 알려진 특이한 여름만두이다. 다른 계절에는 보통 만둣국처럼 따뜻하게도 먹지만 하절기에는 쪄서 식혀 먹거나 차가운 육수에 띄워 먹기도 한다. 차게 먹는 만두라는 점도 별나지만 생김새도 범상치 않고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한 음식이다.

편수는 정사각형 피에 소를 넣고 네 귀를 서로 붙여서 만든다. 위에서 보면 네모이고 옆에서 보면 세모꼴로 피라미드처럼 독특하게 생겼다. 그 모습을 작가 박완서는 개성상인의 가족사를 그린 장편소설 〈미망〉에서 "양지머리를 곤 맑은 장국에 떠 있는 편수가 꽃봉오리처럼 어여쁘고 앙증맞았다"고 묘사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식 편수는 네모꼴로 빚는 반면 개성식 편수는 둥글게 빚는다"는 주장도 한다. 1815년에 나온 요리서 〈규합총서〉에서는 편수를 '변시만두'라 하면서 "밀가루 반죽을 밀어 귀나게 썰어 소를 넣고 귀로 싸고 닭을 곤 물에 삶아 초장에 쓰라"고 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1527년의 〈훈몽자회〉에서는 '혼돈(餛飩)'을 만두 또는 '변시'라고 한다 했다. 1796년에 나온 서유문의 청나라 기행문집 〈무오연행록〉에도 우리의 만두 모양같이 만들고 신맛이 나는 변시를 먹었다는 일화가 나온다. 그런데 1800년대에 나온 문헌들인 〈임원경제지〉나 〈동국세시기〉는 "세모의 모양으로 만든 만두를 변씨만두라 하는데 변씨가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생겼을 것"으로 그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변시가 '변씨만두'로 변한 것이다. 그러나 변씨가 누구인지는 어떤 문헌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궁중연회를 기록한 1719년의 〈진연의궤〉와 그 이후의 〈진작의궤〉 및 〈진찬의궤〉에는 변시와 비슷한 물만두 병시(餠匙)가 자주 등장한다. 그래서 식품학자들은 궁중의 병시가 민간에 나와 편수나 변씨만두가 된 것으로 추정한다.

언어학자들의 설명은 더 복잡하다. 1690년에 나온 어학서 〈역어유해〉에는 편식(扁食)의 중국어 발음이 '변시'라 표기되어 있어 변시가 중국어를 차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후의 〈한청문감〉이나 〈방언유석〉, 〈화어유초〉 같은 사전류에도 변시가 나온다. 그것이 우리나라 한자음의 개입으로 '편시'가 되었다가 〈광재물보〉에 나오는 편슈로, 그것이 다시 편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소에 채소가 많이 들어간 개성의 향토음식

1957년에 간행된 〈큰사전〉에는 편수의 동의어로 변씨만두가 나온다. 변씨만두라는 단어를 표제어로 실은 것도 이 사전이 처음이다. 변씨만두는 중세어 '변시'와 근대어 '만두'가 복합되어 이루어진 것인데 여기서 '변시'가 '변씨'로 변했다는 것이다. 중세어 '변시'가 단독으로 쓰인 경우에는 '편시'를 거쳐 '편수'가 되었는데 복합어에서는 '변시'가 그대로 유지되다가 '변씨'로 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음식이름 하나가 자리 잡는 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흔히들 편수를 유두절 음식이라 하는데 〈동국세시기〉는 편수와 비슷한 각서(角黍)와 종(粽)을 유두의 시절음식으로, 변씨만두는 시월의 시식으로 소개하고 있어 좀 헷갈리는 측면도 있다. 이런 복잡한 설명 외에 그 모습이 조각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서 편수(片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단순한 해설도 있다. 아무튼 소에 채소가 많이 들어가 담박한 편수는 여름철 음식으로 제격이다. 서울 부암동의 자하손만두에 가면 오이가 든 네모꼴 편수를 만날 수 있고, 용두동의 개성집에서는 호박이 든 둥근 편수를 맛볼 수 있다.

글 · 예종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음식문화평론가)

후대가 말하는 그의 근무 평가는?

여말선초의 역사는 말 그대로 격동 그 자체다. 후대의 입장에서 보자면 고위관리로 살면서 그 격랑을 무사히 헤쳐나온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처신이나 운수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여말선초 튀지 않는 처신으로 역사에 기여하고 몸도 잘 보존한 인물로 **김사형**(金士衡 · 1333~1407)을 지나칠 수 없다.

그는 삼별초를 소탕하고 이어 일본 원정에 앞장섰던 김방경(金方慶 · 1212~1300)의 후손으로 고려의 명문가 출신이었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해 벼슬길에 들어 요직을 두루 거치며 순조로운 관리의 길을 걸었다. 무엇보다 그는 직무수행 능력이 뛰어났다.

그는 고려 말 이성계가 위화도회군으로 수문하시중에 올라 정권을 장악했을 때 강원도 지역을 책임지는 관찰출척사(조선시대의 관찰사)가 되어 해당 지역을 잘 다스렸고 중앙으로 돌아와 대사헌에 올랐다. 그가 대사헌으로 봉직하는 동안 "조정이 숙연해졌다"고 할 정도로 일을 엄격하게 처리해 이성계의 신임은 더욱 커졌다. 자연스럽게 이성계 진영에 속하게 된 김사형은 조선이 개국하자 1등공신에 책록됐고 병조전서(훗날의 병조판서) 등을 거쳐 문하 우시중(훗날의 우의정)에까지 오른다.

그런데 김사형은 우시중으로 있으면서 실권자인 정도전보다는 좌시중 조준의 정치노선을 따랐다. 이것이 훗날 그의 운명을 또 한 번 가르게 된다.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조준과 김사형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물론 예전부터 두 사람은 이성계의 사람임과 동시에 이방원의 후원자였다. 당일 두 사람은 이성계를 버리고 이방원을 선택한다. 1398년 8월 26일 밤, 상황이 끝나갈 무렵 주도권을 장악한 이방원은 조준을 찾았다. 그런데 일관되게 이방원을 지지했던 조준도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방원이 보낸 사람이 조준의 집에 가보니 조준이 점을 치고 있었다. 그만큼 절박했다.

점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마침내 조준은 결단을 내리고 이성계에 더 가까웠던 김사형을 설득해 함께 이방원 앞으로 나아간다. 좌정승과 우정승이 모두 이방원 편에 섬으로써 왕자의 난은 마침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김사형의 입장에서는 천운(天運)이었다.

조준과 김사형은 요즘 식으로 말하면 환상의 콤비였다. 태조 시대 두 사람이 보여준 관계에 대한 실록의 평이다. "조준은 강직하고 과감하여 거리낌없이 국정을 결단하였고 김사형은 관대하고 긴용(緊用)한 것으로 이를 보충하여 조정의 논란들이 대부분 가라앉았다." 조준과 김사형은 업무 차원에서도 상호보완적이었던 것이다.

고려 공민왕 때 등용 순조로운 관리의 길
위화도회군 후 실력자 이성계 눈에 들어
왕자의 난 땐 우정승으로 이방원 진영 합류
70세까지 벼슬 살며 탄핵 한번 받은 일 없어

태종1년 김사형은 마침내 최고 실권자의 자리인 좌정승에 오른다. 그리고 1년 후 마침내 나이 70이 되어 관직에서 물러난다. 태종7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실록 졸기는 "벼슬을 하면서 한 번도 탄핵받은 일이 없다"고 평했다. 유배를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상하 동료들로부터 탄핵도 받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실록이 전하는 그의 성품 때문일 것이다.

"김사형은 침착하고 지혜가 있었고 조용하고 중후하여 말이 적었으며 속으로 남에게 숨기는 것이 없고 밖으로 남에게 모나는 것이 없었다. 재산을 경영하지 않았고 여색을 좋아하지 않았다. 시작도 잘하고 마지막을 좋게 마친 사람으로 이에 비교할 만한 이가 드물다."

글 · 이한우 (조선일보 기획취재부장)

〈신 없는 사회〉

신앙이 내면화된 '문화적 종교'

필 주커먼 지음
마음산책 · 1만6천원

제목부터가 자극적이다. 〈신 없는 사회〉라니. 신앙이 있건 없건, 신 없는 사회를 상상하기는 어렵다. 21세기에도 섬기는 신이 다른 두 문명권이 무력충돌을 일으키지 않았던가. 어쩌면 인류는 신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 문제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신 없는 사회라니? 혹 무신론자인 지은이가 이상사회를 그린 책이 아닐까 하는 짐작도 하게 한다.

책을 읽어보면 제목을 왜 그리 붙였는지 알게 된다. 종교사회학자인 지은이는 덴마크에 머물면서 이 사회의 독특한 특징을 눈여겨본다. 루터교가 국교인데 상당수 젊은이들은 자신을 근본적인 의미의 기독교인이라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러 논문과 자료,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왜 그런지 이론적으로 해명한다. 지은이의 탐사는 스웨덴까지 확장되는데, 두 사회가 상당히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종교가 힘을 잃어도 삶의 만족도는 높아

덴마크나 스웨덴 종교현상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교회 출석률이 지독히 낮고, 종교가 확실히 목소리를 죽이고 일상생활의 변경으로 밀려나 있는 사회"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두 나라가 루터교가 국교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더욱이 미국인 학자 입장에서 보면 근본주의 기독교가 득세하는 미국보다 두 나라 국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현실은 상당히 큰 충격이었다.

지은이는 두 나라에서 루터교 영향력이 낮아진 이유를 짚어본다.

첫째 게으른 독점. 다양한 종교들이 규제받지 않고 경쟁하는 사회는 종교에 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진다. 그런데 국교가 있는 두 국가는 아무래도 자신의 존재를 적극 홍보하지 않게 되니, 시민의 관심 영역에서 멀어졌다고 본다.

둘째는 안전한 사회다. 두 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상당히 튼실하다. 이것이 바로 종교성을 낮아지게 했다는 것.

셋째는 일하는 여자들이다. 종교에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더 관심이 많고 적극성을 띠게 마련이다. 그런데 여성들이 직장일에 관심을 쏟고 매달리면서 종교에 대한 에너지가 줄어들었다. 다른 종교 전통의 위협을 장시간 받지 않아 발생한 문화적 방어욕구의 결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자연적인 종교신앙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은 점, 사회전반에 종교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사회민주주의의 정책은 기타 요소로 꼽았다.

종교가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는 자세 돋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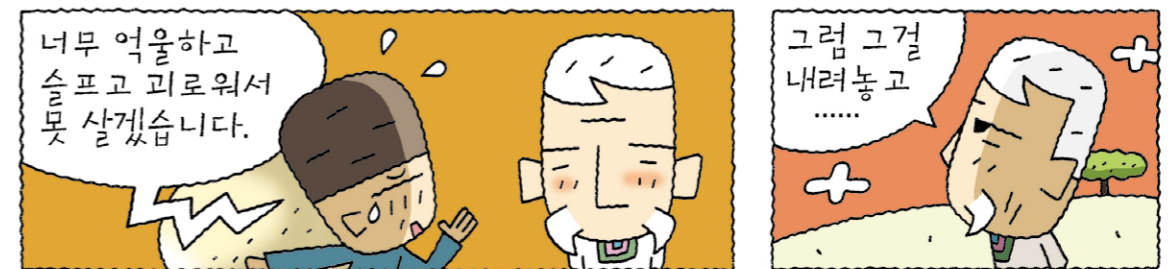
지은이의 분석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안전한 사회론이 가장 설득력 높다 여겼다. 현지 인터뷰를 보면 할아버지 대는 신앙심이 강했고, 사회는 그만큼 어려웠다. 아버지 대부터 신앙심이 약화되었고, 아들 대에 이른 오늘 종교의 영향은 현격히 줄어들었으나 경제력은 훨씬 높아졌다. 어느 신앙에나 기복이 있게 마련인데, 이 점이 해결되면 그만큼 종교에 대한 관심도 떨어질 듯싶다.

지은이가 두 나라에서 본 특이한 현상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교회에서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았고, 아이들의 견진성사도 대체로 찬성했다. 이런 현상을 일러 지은이는 '문화적 종교'라 이름지었는데, 그 의미는 "오랫동안 전해진 종교적 전통에 분명한 소속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기들 종교의 다양한 관습과 축제에 참여하지만, 자기네 종교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의 비율은 지극히 낮다"는 것이다.

책을 읽으며 인상 깊은 대목이 있었다. 기독교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에 많은 사람이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가난한 자와 병자를 돌보고,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 했다. 이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는 않는다고 했다. 무엇을 믿고 얼마나 신봉하느냐 하는 점보다 그 종교가 궁극적으로 가르치려고 한 바를 삶에서 실천하려는 자세가 돋보였다. 종교가 과잉된 사회든, 아니면 지나치게 축소된 사회든 이것만은 동의한다면 인류사회가 살 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

글 · 이권우 (도서평론가)

방금 내려놓은 그 짐

글과 그림 · 최영순

모든 물질적 욕심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행복은 찾아온다. -라 로슈푸코(프랑스 고전 작가)

코믹호러 작품인 〈칠레라마〉는 젊은 감독들의 기발한 발상과 배우들의 맛깔스러운 연기가 돋보인다.

부천 판타스틱~ 판타스틱! 영화 보며 무더위를 싹!

제16회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무더위를 식혀줄 짜릿한 영화들이 온다. 제16회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가 7월 19일부터 부천시청, 부천체육관, CGV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등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역대 최대인 47개국 2백30개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라 풍성함을 더했다.

올해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의 주제는 '사랑, 희망, 모험'이다. 호러 영화뿐만 아니라 코믹, 멜로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상영돼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다. 호러 장르 마니아라면 네 명의 미국인 감독이 보여주는 옴니버스 영화 '칠레라마'와 인도네시아 영화 '벨렝구:토끼 살인마', 스페인의 '아르가의 늑대인간' 등이 주목할 만하다. 달달한 사랑 얘기를 원한다면 대만 영화 '소울 오브 브레드',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면 '우주형제'나 '명필름展' 등이 좋다.

이번 영화제의 개막식(19일)과 폐막식(27일)은 부천 체육관에서 열린다. 개막작으로는 5명의 한국 감독이 만든 옴니버스 영화 〈무서운 이야기〉가 상영된다.

폐막작은 동명 만화를 영화로 옮긴 미이케 다카시 감독의 〈아이와 마코토〉다. 개·폐막식 때는 영화 상영과 함께 레드카펫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영화제 기간 내내 거리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볼 수 있는 'PIFAN Movement'와 '우중영화산책', '장르문학 북페어' 등이 열려 영화관 밖에서도 영화제의 열기를 한껏 느낄 수 있다. G

정리 · 이현민 인턴기자

기간 7월 19~29일 **장소** 경기도 부천시 일대 **문의** ☎032-327-6313

축제 2012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국내 최대 만화·애니메이션 축제인 '제16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2012'가 열린다. '두근두근 행복 파라다이스'를 주제로 내건 이번 행사는 애니메이션 영화제, 만화·애니메이션 전시, 만화애니메이션산업마켓(SPP) 총 3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는 연상호 감독의 '돼지의 왕', 이대호 감독의 '파닥파닥' 등 국내외 작품 3백여 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기간 7월 18~22일 **장소** 코엑스, CGV 명동
문의 ☎02-3455-8435

공연 2012년 명인·명창 상설공연 '비상'

'명인, 31년 만에 다시 비상하다.' 31년 전통 예술공연만을 고집한 '한국의집'이 대한민국 최고 명인들의 상설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명창 안숙선, 가야금 명인 안옥선 자매의 판소리와 가야금 산조, 무용가 국수호와 정재만의 독무를 볼 수 있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예술단은 부채춤과 오고무를 선보인다. 공연 시간은 매일 오후 6시30분, 관람료는 5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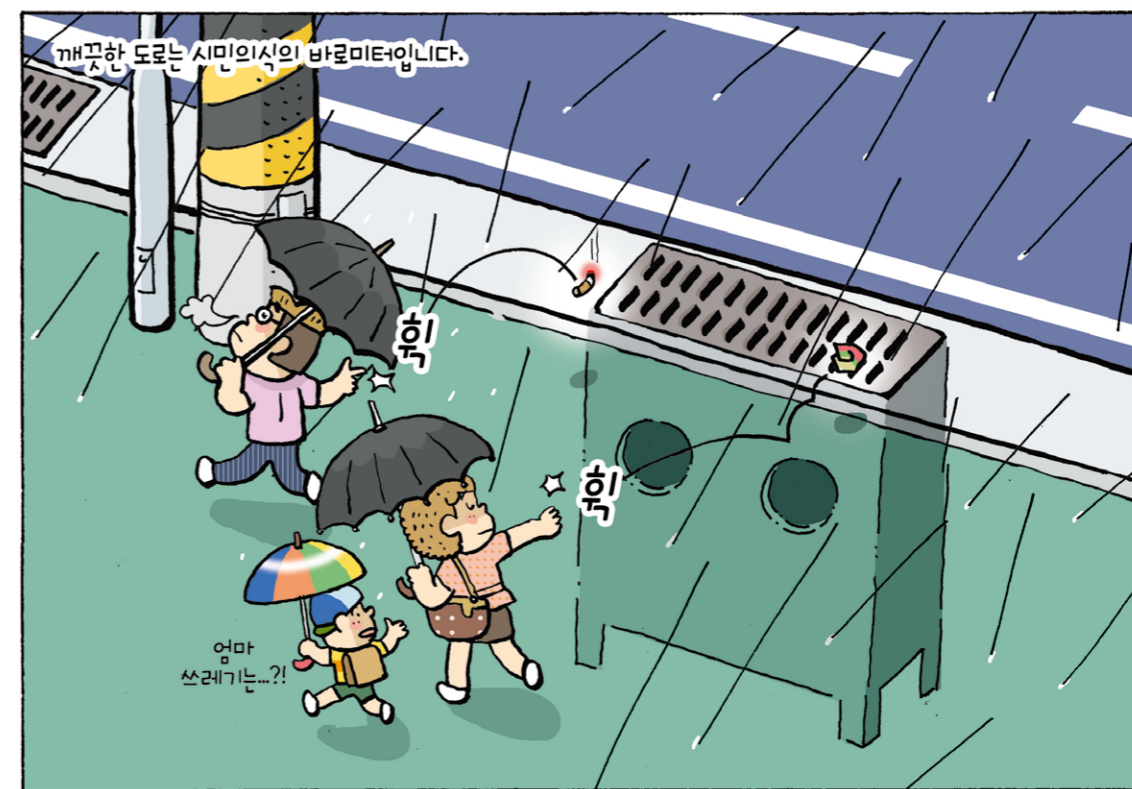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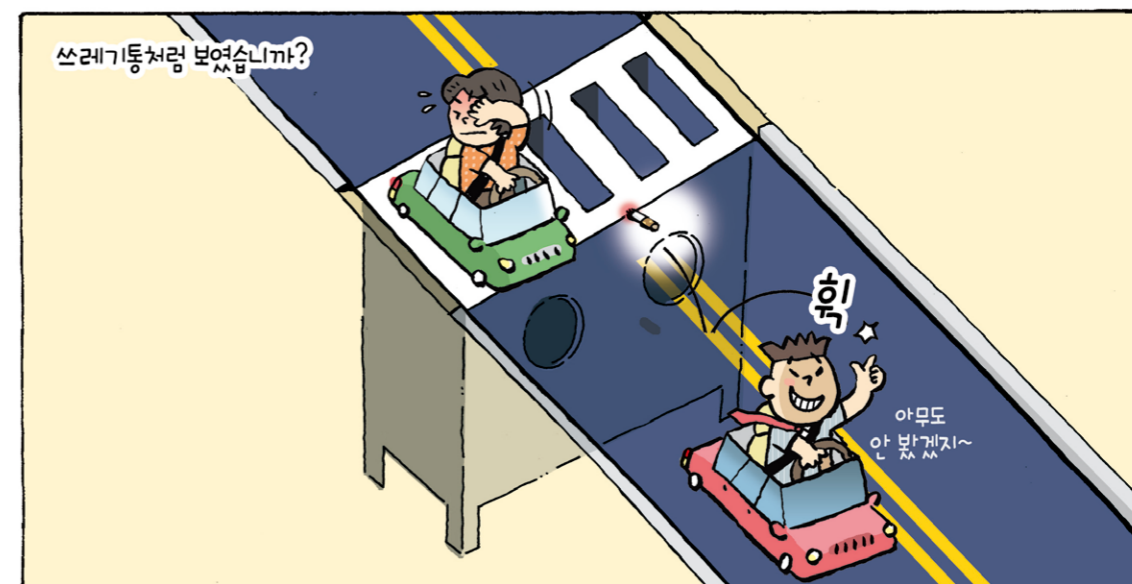
기간 7월 15일~8월 15일 **장소** 한국문화의집 KOUS
문의 ☎02-2266-9101~3

7월 둘째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7월 01일~7월 07일

	곡명	가수
1	Loving U	씨스타
2	I Love You	2NE1
3	Day by day	티아라
4	정말로 사랑한다면	버스커 버스커
5	Sexy, Free & Single	슈퍼주니어
6	한사람	허각
7	가슴이 시린 게	이현
8	그댈 마주하는 건 힘들어	버스커버스커
9	방구석 날라리	처진 달팽이
10	충분히 예뻐	버벌진트

착시 현상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어렵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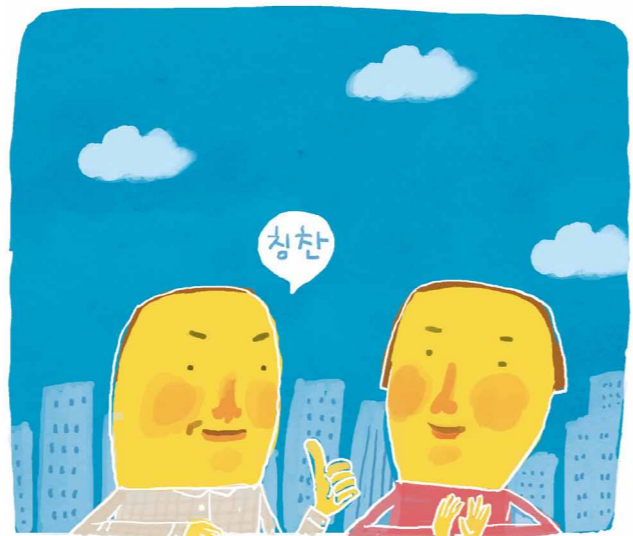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뤠?

나는 '칭찬하기' 모임의 회원이다. 이름만 들으면 꼭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학급회의에서 결성한 모임 같지만, 구성원은 이렇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농부, 꼬부랑 할머니, 그리고 시인도 있고 우편집배원 아저씨도 있다.

한번은 산골짝 우리 마을에서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확산해 두 패로 갈라지더니, 모이기만 하면 상대편을 비방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어찌어찌하다 보니 나도 맞장구를 치며 신나게 남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마을도서관에 책 빌리러 온 주민 3명과 나, 이렇게 네 명이 만든 모임인데 이제는 회원 수가 상당히 늘었다.

모임의 내용은 소박하기 그지없다. 하루 30분씩 책을 읽고, 하루 한 번씩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자는 것이다. 세상 풍파를 다 겪은 어른들이 모여 이렇게 단순하고 유치한 모임을 만드느라 첫날에는 허탈하게 웃었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남을 비난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되자, 마치 꺼질 줄 모르고 타오르던 화재가 진화되듯 마을 전체로 번졌던 비방의 불씨가 차츰 가라앉는 것이었다. 두 사람만 모이면 남의 흉을 보던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칭찬했다. 그러면서 화기애애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마을의 문제점도 쉽게 풀리는 걸 보고 서로 깜짝 놀랐다. 긍정의 힘이었다.

일러스트 · 이철원

칭찬은 돈 한푼 안 들이고 사회가 성공하는 열쇠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칭찬은 자석처럼 서로 끌어당겨 하나가 되게 할 뿐 아니라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있다고 한다. 또 칭찬과 비난은 상대적 위치에 있어 칭찬의 무게가 커지면 비난의 무게는 자연히 줄어든다 하니 칭찬이야말로 돈 한푼 안 들이고 사회가 성공하는 열쇠일 것이다.

칭찬하자!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면 저절로 타인의 장점에 관심을 두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장점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이웃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것보다 칭찬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이다. 우리는 왠지 칭찬하는 일에 조금 인색한 듯 느껴진다. 나만 해도 어린 시절 부모님의 엄한 회초리가 칭찬보다 더 많이 기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시인이 된 것은 담임선생님의 칭찬 한마디 때문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써온 여름방학 일기를 읽고 선생님께서 칭찬하신 말씀 한마디, "너는 자라서 시인이 될 거야!" 그 이후로 나는 반드시 시인이 될 거라고 믿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어느 날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하는 시인이 되어 있었다.

주변에서 보면, 학생 시절 선생님의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로 분발해서 사회 각 분야의 기둥이 된 사람들이 적지 않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칭찬해주면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어 분발하게 되는 것이다. 칭찬을 주고받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이고 곧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겠는가? 칭찬하면서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은 없다.

살아보니, 웃는 일보다 쉬운 일은 없고 웃으면서 칭찬하는 얼굴보다 멋진 얼굴도 없더라.

글 · 유금옥 (시인)